

CT
284.2233
711697

2007학 년 도
석사학위논문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교리 연구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조직신학 전공

 고신대학교



DM00008330

김 석 현

신학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유 태 화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교리 연구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신학석사(Th.M)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월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조직신학 전공

김 석 현

“이 논문을 김석현의 신학석사(Th.M) 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 신 열 인

심사위원 김 종 희 인

심사위원 유 태 화 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 자유의 역할과 기능.....	43
3 자유와 칭의, 자유와 성화의 관계.....	46
3.1 자유와 칭의의 관계.....	46
3.2 자유와 성화의 관계.....	47
4. 자유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50
IV. 은혜의 보상(상).....	52
1. 은혜의 보상의 의미.....	52
2. 은혜의 보상의 역할과 기능.....	57
3. 은혜의 보상과 칭의, 은혜의 보상과 성화.....	60
3.1 은혜의 보상과 칭의.....	60
3.2 은혜의 보상과 성화.....	62
4. 은혜의 보상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66
V. 율법의 제3 용도.....	69
1. 율법의 제3 용도의 의미.....	69
2. 율법의 제3 용도의 역할과 기능.....	72
3. 율법의 제3 용도와 성화, 칭의.....	74
3.1 율법의 제3 용도와 칭의.....	74
3.2 율법의 제3 용도와 성화.....	77
3.3 율법의 제3 용도와 성화.....	77
4. 율법의 제3 용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77
VI. 결론.....	79

1.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교리.....	79
2.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81
3. 칼빈 신학의 적용문제.....	83
참고문헌.....	87
Abstract.....	

I.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로마 가톨릭의 타락의 배경에는 잘못된 교리의 이해가 큰 영향을 끼친다. 존 칼빈(John Calvin)은 중세말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교리(doctrina), 성례(sacramenta), 그리고 교회 정치(ecclesia gubernanda), 셋으로 묶어 지적하였다.¹⁾ '오직 은혜만으로'(sola gratia)와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를 강조하는 개혁자들의 견해와 '오직 은혜만으로'(grace alone)란 의미가 은혜가 우선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 오직 은혜(exclusively of grace)라는 의미를 취하지 않는다²⁾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는 칭의와 성화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상 등 다른 교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은 트렌트 종교회의를 따르는데 그들의 구원의 필수조건은 은혜와 행위로 이루어진다. 트렌트 종교회의는 "선행으로 인해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³⁾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구원에 있어서 공로주의의 주장은 마르틴 루터

1) 기독교신학저널, 통권 제 2호, 2002. 3. 천안대학교 기독교신학대학원(발행), 기독교연합신문사(편집, 인쇄), "종교개혁의 필연성", 임원택, 174. 재인용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40-41; Opera, 6:473-74.

2) 노만 가이슬러, 『로마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126. 프로테스탄트들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믿는다. 카톨릭인들과 프로테스탄트들 모두 오직 은혜만으로(sola gratia) 구원받는다고 말함으로써 특징지어 지지만, 프로테스탄트들은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를 첨가했다고 본다. 하지만 다른 점은 '오직 은혜만으로(grace alone)'라는 의미이다. 가톨릭인들이 '오직 은혜만으로'라는 의미가 개혁과 프로테스탄트들이 의미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표준 가톨릭주의는 '오직 은혜만으로'란 의미를 은혜가 우선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 오직 은혜(exclusively of grace)라는 의미를 취하지 않는다. 공식적 가톨릭주의는 행함이 은혜로 인해 자극 받는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들이 부인하는 선행의 공로적 성격을 믿고 있다.

3) 『로마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322.

(Martin Luther)의 칭의에 대한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며,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가톨릭의 칭의에 관하여 주입된 의의 사상과 구원의 필수조건으로 은혜와 함께 공로적 행위를 주장하는 그들에 대항하여 반박하였다. 칼빈은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가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칼빈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즉 한 쪽을 세우면 다른 쪽은 넘어져야 할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로 하자. 사도는 '모든 것을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3:8-9)고 한다. 여기서 반대 개념들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⁴⁾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의 의한 의는 서로 반대의 개념이므로 서로 화합할 수 없다.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반박하고 나선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한 개혁자들이 처음부터 개신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⁵⁾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타락상은 그들에게 만연된 성상숭배, 성자숭배, 성인숭배 등에서 나타났고, 면죄부 판매 전문가 테젤(Tetzel)의 말은 로마 가톨릭의 타락의 단면을 증거한다. “상자에 페니가 떨어지면, 영혼은 연옥에서 뛰어 오른다.”라고 하였다.⁶⁾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던 당시 로마 가톨릭과 대항하여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고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를 제시하였다. 종교개혁의 대의는 중세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체계적으로 지적함으로써 확고히 했다는 점이다.⁷⁾ 박영돈은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비판한 칼빈이 칭

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종흡,신복윤,이종성,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제3권 제11장 제13절, 이하 Inst., III. 11. 13. 로 표기함.

5) 기독교신학저널, 통권 제 2호, 2002. 3. 천안대학교 기독교신학대학원(발행), 기독교연합신문사(편집, 인쇄), “종교개혁의 필연성“, 임원택, 172.

6) 『로마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323.

7) 『기독교신학저널』, 174.

의와 성화의 연결성을 강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칭의와 성화는 영원한 끈으로 하나로 엮어져 있지만, 이 둘을 논리적으로 구별할 필요는 있다. 로마 가톨릭과 같이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여, 칭의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거룩함(성화)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구속의 사랑과 은혜의 성격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오류에 대응해서는 칭의와 성화를 날카롭게 구별하는 동시에, 성화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무율법주의의 위험에 대비해서는 칭의와 성화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⁸⁾

박영돈의 지적과 같이 칼빈은 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칭의와 성화의 연결성을 강조하여 칭의와 성화를 혼합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여 그들의 잘못과 다름을 말하였고 무율법주의의 위험에 대하여 칭의와 성화의 연결성을 강조하여 그들의 잘못된 교리의 위험성을 말하였다.

앞에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의 이해가 가져온 타락상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교육되어지고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장의 요인의 힘을 통하여 양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질적으로 성장하였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한국교회와 신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면들이 한국교회의 앞날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의 성장의 모습과는 달리 기독교는 성장의 침체를 겪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일부 교회를 제외한 오늘날 다수의 교회에서 발견된다.

8) 박영돈, 오늘날 교회의 구원과 성화(영적 성숙을 위한 한국 교회의 과제) 『구원이후에서 성화의 은혜까지』, 박영선, 브라이언 채플의 9인 공저.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5), 244.

한국교회와 성도는 이제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화와 칭의의 기능에 있어서 칼빈이 생각하고 희망했던 교회와 성도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형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김영재는 한국교회의 성화의 삶에 결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윤리적인 삶이 곧 성화의 삶은 아니지만 성화의 삶은 윤리적인 삶을 포함하고 그것을 요청하므로 윤리적인 삶이 없는 성화의 삶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 윤리적인 삶이 결여되었다면, 그것은 성화의 삶에 결함이 있다는 말이 된다.”⁹⁾

김영재는 성화와 윤리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 성화의 삶에는 윤리적인 삶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비윤리와 부도덕의 현상은 성화의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잘못된 성화의 삶에 있어서의 결함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회피하는 구실을 제공하였고 죄를 끊어 버리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짓 안위를 안겨주었다.¹⁰⁾

박영돈도 오늘날 교회의 문제로 두 가지를 지적한다. 하나는 무율법주의적 혼란이고, 들은 율법주의이다. 그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성화의 삶의 공백은 무율법주의를 양산하게 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여기에는 은혜와 축복만을 강조하는 설교의 영향이 크다 하겠다. 반면에 윤리적 설교는 다른 극단, 즉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¹¹⁾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은혜보다 공적과 선행을 강조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보상을 말함에 있어서 행위에 의한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치 로마 가톨릭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

9) 김영재, "한국교회의 구원과 성화: 약화된 성화의 삶에 대한 교회사회적 고찰" 『구원이후에서 성화의 은혜까지』, 박영선, 브라이언 채플의 9인 공저.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5), 271.

10) 박영돈, "오늘날 교회의 구원과 성화: 영적 성숙을 위한 한국 교회의 과제," 『구원이후에서 성화의 은혜까지』, 박영선, 브라이언 채플의 9인 공저.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5), 245.

11) *ibid.*, 243-46.

가 있다. 개혁신학의 왜곡으로 인해서 사상의 황폐화가 초래되었고 신앙은 형식만 남았으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다.¹²⁾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7, 8장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언급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비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결국, 이러한 한국교회의 시대적 배경의 이면에 칭의와 성화와 관련하여 잘못된 신학적 문제가 있어 이를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구원론에 있어서 성경적인 교회와 신자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중심을 칭의와 성화에 두었다. 하지만 칼빈은 균형과 조화를 이룬 신학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이신칭의의 강조와 율법의 제2 용도¹³⁾ 측면에서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교리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진 균형 잡힌 신학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칭의와 율법의 제2 용도로 치우친 교리의 이해에 적용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신자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시대에 칼빈이 의도했던 것은 특정교리에 치우치거나 강조하거나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칭의와 성화를 중심으로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의 용도가 상호 긴밀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안에서 통하여 작용한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그리스도와 연합의 개념으로 이러한 교리들을 다루었다.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위의 교리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안에

12) 김재성, 『기독교신학, 어떻게 세워야하나』 (서울: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4), 182.

13) 율법은 시민법의 용도, 신학적인 용도, 중생한 자들을 위한 규범적 용도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율법의 제2 용도는 신학적인 용도로서 우리 각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며, 알리며, 책하며, 결국 정죄한다. 제2 용도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본고에서는 이 용도를 율법의 제2 용도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첫 번째로 다룬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 5장 ‘율법의 제3 용도’를 참조.

서 신자에게 주어진다.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의 역할은 긴밀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를 성화의 삶에서 분리시켜서는 이 세상의 축복들만을 소망하는 거짓된 이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이러한 교리들에 대한 적용의 불균형은 한국교회와 신자들에게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왜곡될 수밖에 없고 이원론적으로 흐르는 원인을 제공한다. 한국교회와 신자들의 삶의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칼빈이 말하는 칭의와 성화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연합의 구원론에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진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의 교리 역할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이원론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진 자유의 선용(善用), 은혜로서의 보상에 대한 넘치는 감사, 율법의 제3 용도의 보호의 역할이 한국교회와 신자들에게 방향제시가 되어 신자들의 이원론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칼빈이 목적하였던 성경적인 교회와 참된 신자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괴리현상의 원인으로 한국교회에서 칭의와 율법의 제2 용도 중심의 신학적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도된 본 연구는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다룬다. 본고 2장에서는 칼빈의 칭의와 성화를 이해하고 각각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알아본다. 칼빈은 칭의에 대하여 4가지로 정의한 다음 이것을 중심으로 칭의를 고찰하고,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성화에 대하여는 『기독교 강요』 3권 3장부터 10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3장부터는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 회개’로 시작하여 4장과 5장에서는 ‘복음의 순수성과는 거리가 먼 스콜라 퀘변가들의 회개론’, ‘고해와 만족설’(보속설)을 논하고, 6, 7, 8장에서는 실천부분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다룬다. 본고에서는 『기독교 강요』 3권 2장과 3장을 통하여 믿음과 회개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 후, 실천부분을 통하여 칼빈이 말한 성화를 전개할 것이다. 또한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고찰한다.

본고 3장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교리들에 관한 연구로서 ‘자유’를 4장에서는 ‘은혜의 보상’, 5장에서는 ‘율법의 제3 용도’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며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교리들로서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의 각 교리의 어떤 기능들로 연관되어 있는지 규명할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이 말하는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먼저 이해를 하고 칭의와 성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살펴본다. 후에 자유, 은혜, 율법의 제3 용도가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돕는지 살펴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성화와 함께 칭의를 다루는 이유는 칭의를 따르는 자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칭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으로 칭의와 성화를 중심으로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상호관계 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에 대하여 논문의 범위를 잡고 분석한 후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교리로서의 역할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과 함께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교리에 대한 연구를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인간의 일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으며 둘을 합하여 같이 연구할 수도 있다. 칼빈은 신앙을 하나님의 행위로 보았는가? 아니면 인간의 행위로 보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았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인간의 일도 부정하지 않았다.¹⁴⁾ 이에 우리는 인간의 일에 대한 관점으로 범위를 정하

여 연구한다.

특히,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지만 그러나 성화를 ‘하나님의 일’의 측면에서 연구한다면 ‘인간의 일’에 대한 연구의 부분이 축소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일’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 성령중심의 이해는 다루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와 함께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돕고 어떤 기능이 있는 교리들인지에 대하여 연구한다.

결론에서는 논지를 요약하여 첫째는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교리들에 관하여, 둘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문제, 셋째는 칼빈 신학의 적용문제에 관하여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연구 자료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중심으로 논문, 각종 문헌 등을 참조한다.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교리들로서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 그리고 이 교리들의 역할과 기능,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밝히려고 한다.

14)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71.

II. 칼빈의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해

1. 칼빈의 칭의에 대한 이해

칼빈은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또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¹⁵⁾라고 정의내린다. 칭의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칭의는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 신자들에게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해 받는다. 뿐만 아니라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독교 강요』 3권 11장에서 명칭과 문제에 대한 정의를 다룰 때, 3권 14장에서 칭의를 다룰 때, 3권 16장에서는 교황주의자들의 거짓된 중상에 대한 반박으로, 3권 18장에서는 보상과 행위의 문제를 다룰 때 등, 많은 부분을 칼빈은 칭의는 선물로 주어지며 어떠한 공로와 선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데 사용한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확립함으로써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행위로 인하여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이러한 비슷한 유형은 바울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잘못을 반박하고, 신자들에게는 잘못된 진리를 바로 잡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는 의도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율법주의자들을 반박한다. 또한 신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드러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공로와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감격을 약화 시킨다.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칭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 주시는 것, 둘째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 셋째 칭의는 죄 용서하는 것, 넷째 칭의는 그리스

15) Inst., III. 11. 2.

도의 의의 전가이다.¹⁶⁾ 여기에 근거하여 칭의에 관하여 알아보자.

1.1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 주시는 것

칼빈은 로마서 8:33-34을 해석하면서 ‘의롭게 한다’는 뜻을 설명한다.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이 사면해 주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변호하며 보호하시는 사람들을 누가 정죄하겠는가?”¹⁷⁾ 라는 뜻으로 법적인 용어, 즉 사면, 고소, 변호, 보호, 정죄를 사용한다. 먼저 ‘의롭게 하다’의 용어에 대하여 안토니 A. 후크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히브리사전인 B.D.B.(Brown, Driver, and Briggs)에서 사용된 예로 구약의 차따크의(tsadaq) 힙힐(hiphil)인 히츠티끄(hitsdiq)와 신약의 ‘의롭다’의 동사 디카이오오(dikaioo)는 법적인 의미로 의도되었으며 ‘정당한 혹은 의롭게 하다’가 아닌 ‘법과 일치한 사람을 의롭게 선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¹⁸⁾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39절을 인용한 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죄 용서에 대한 이전 구절에서 언급은 ‘죄로부터 의롭게 되다’라는 죄 때문에 받은 정죄로부터 자유를 뜻하는 것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주후 1세기 중엽에서부터 법정의 판정을 언급하는데 파피루스에서 사용되는데 바울이 사용하는 것과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다.¹⁹⁾

16) Inst., III. 11. 2.

17) Inst., III. 11. 3.

18) 안토니 A. 후쿠마, 『개혁주의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252.

19) *ibid.*, 252-53.

위에서 칼빈은 죄 용서에 대하여 '의롭게 되다'라는 법정용어를 사용하였다. 칼빈은 이 법정용어를 사용하여 '의롭게 하다'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소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마치 무죄가 확정된 것같이, 그 죄책이 없다고 무죄 석방을 선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중재로 의롭다고 하시므로 하나님의 이 사면은 우리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이며, 그 결과로 우리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²⁰⁾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의롭게 하다'라는 뜻보다는 '의롭게 선포하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바르며 법정적이다. 그러나 이 선포는 우리의 죄가 없다고 판결된 무죄의 확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의인으로 인정을 얻는다'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행위의 완전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한다. 그와 반대로 행위에 의해서는 바르다는 증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서 나타날 때에는--신앙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한다.²¹⁾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칭의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

20) Inst., III. 11. 3.

21) ibid.,

적이며 선포적'이라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1.2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보고자 할 때 먼저 구원의 수단인 믿음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믿음은 값없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자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야말로 믿음의 고유한 목표하는 것을 지적한다.²²⁾ 환언하면 값없이 주신 약속의 근거는 믿음이며 믿음의 고유한 목표는 자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된다. 이 약속에 따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칼빈은 의롭다함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에 의해서 받는다는 설명을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설교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행13:38-39)” 여기에 보면 죄의 용서를 말한 후에, 그에 대한 해석으로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말을 한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분명히 죄의 사면으로 해석하며,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에서 분리시키고 있다. 의롭다함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받는다고 한다.²³⁾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은 의롭다함이 율법의 행위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그 어떤 선행이나 공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

22) Inst., III. 2. 29.

23) Inst., III. 11. 3.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오시안더는 칼빈이 말하는 칭의교리와 다른 ‘본질적 의’라는 이상한 사상을 들고 나왔다. 칼빈은 이 ‘본질적 의’ 사상의 폐단을 설명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거저 주시는 의를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나 이의를 깊은 안개 속에 묻어 버린다. 둘째, 이로 인하여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뚜렷이 체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칼빈이 말하는 오시안더의 주장을 살펴보자.

오시안더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면, 거의 아무 중요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에, 다음과 같이 자기 생각을 더욱 밝히 나타낸다. ‘우리는 중보자의 은혜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며, 중보자 안에서 의가 단순히 또는 완전히 제공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결합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²⁵⁾

오시안더의 결정적인 잘못은 첫째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우리 속에 주입하여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중보자의 은혜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 안에서 의가 완전히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결합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오시안더는 그 하나 됨을 본질적으로 보았고 칼빈은 영적으로 보았으며 오시안더는 칼빈의 이 영적연합을 불충분한 것으로 본 것이 잘못이었다.²⁶⁾

빌헬름 니이젤(Wilhelm Niesel)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며 오시안더에 대하여 비판하는데 우리는 이 견해에 동의

24) Inst., III. 11. 5.

25) Inst., III. 11. 5.

26) Alfred Gohler, 『칼빈의 성화론』, 유정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31.

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을 통하여 소유하신 그 영원한 의를 우리가 부여 받는다는 오시앙테의 견해를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된 하나님 계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시앙테의 견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간과한 것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와 그의 사역을 무시하는 칭의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위태롭게 한다.²⁷⁾

유태화는 오시안더에 대한 칼빈의 비판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오시안더는 (1) 중생과 칭의를 혼동할 뿐만 아니라 (2)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의 존재론적 동일시로 혼동한 것이다. 사실 이것은 범신론적인 경향을 수용하는 위험한 시도인 것이다.²⁸⁾

나이젤과 유태화의 오시안더 비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사람 속에 이입한다는 이 설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리스도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인간의 원형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우리 안에 주입된다는 주장은 그가 성령의 내주 방식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을 신성과의 존재론적 동일시로 혼동하였다.

27) 빌헬름 나이젤, 『칼빈의 신학사상』, 헤롤드 나이트 영역, 기독교 학술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7), 160.

28) 유태화, 『삼위일체론적 구원론』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7), 329.

1.3 죄 용서하는 것

바울이 칭의와 죄의 용서의 관계를 성경에 의하여 증명하였는데 서로 구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칼빈은 증거한다. 사도 바울이 고후 5:19, 고후 5:21을 인용하여 의와 화해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말하고 있으며 서로 한 쪽이 다른 쪽에 포함되어 있고 의를 얻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29) 바울의 견해는 죄의 용서와 의를 연결하여, 둘이 꼭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30)

칼빈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죄인에 대한 용서의 해결이 거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죄의 용서’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한다.

칼빈은 ‘죄의 용서’와 중생을 혼동하는 오시안더의 오류중 하나로 이것을 지적한다. 오시안더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심은 용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중생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하신 후에, 그들의 악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들을 본성대로 버려두시겠느냐?”³¹⁾ 오시안더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신 신자의 본성을 고치신다는 말이다. 여기에 대하여 칼빈은 의와 거룩하심의 두 속성을 분리할 수 없음을 그리스도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없음과 같다³²⁾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든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신 사람에게 동시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롬8:15), 이 영의 힘으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개조하신다. 그러나 태양의 빛과 열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태

29) Inst., III. 11. 22.

30) *ibid.*,

31) Inst., III. 11. 6.

32) *ibid.*,

양의 빛이 지구를 덮게 하고 태양의 열이 지구를 비춘다고 하는가?..... 태양은 그 열에 의해서 땅에 생명과 열매를 주며, 그 광선에 의해서 땅을 비추며 밝게 한다. 이에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한쪽의 특성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은 이성이 금한다.³³⁾

칼빈은 오시안더의 주장이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이 중생의 선물과 값없이 용납하심을 혼합해서 이 둘은 하나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서도 따로따로 기록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잘 보이게 한다.³⁴⁾

오시안더의 견해와 달리 칼빈은 중생의 선물과 값없는 죄의 용서가 연결되면서도 구별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1.4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칼빈은 “자기 밖에서 의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은 그 자신 안에 의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³⁵⁾라고 하였다. 의롭다 함을 받는 문제는 결국 행위로 받을 수 없음을 앞에서 다루었다. 그럼 오시안더가 말하는 ‘본질의 의’의 이해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태화는 오시안더의 잘못된 주장을 각기 다른 곳에서 두 가지로 지적하였다. 오시안더의 주장은 첫째로 “신비적인 연합이 아니라 본질적인 연합, 즉 신일합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⁶⁾라고 하였고, 둘째는 “칭의의 궁극적인 결론은 인간이 신의 본질에 참여하여 신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신화사상에 이른다는 것이다.”³⁷⁾라고 하였다. 유태화는 트레نت 공회의 제6차 회의

33) *ibid.*,

34) *ibid.*,

35) *Inst.*, III. 11. 23.

36) 유태화, 『삼위일체론적 구원론』, 329.

항목7을 인용하여 “의롭다고 간주됨과 실제로 의롭게 됨을 동일시하는 것이다.”³⁸⁾라고 하였다.

위에 관하여 '전가(imputation)'와 '분여(impartation)'로 이해를 돕는다.³⁹⁾ 먼저 '전가'의 의미를 살펴보자. 칼빈의 칭의에 대한 설명 중에 전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칭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된 죄인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죄의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같이 입고 하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서는 것이다. ⁴⁰⁾

'전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시안더의 주장이나 가톨릭의 주장처럼 '신의 본질에' 참여하지도 않으며 '신화'가 일어나지도 않는다. 전가는 마치 죄인인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옷 같이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순결함,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같이 입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같이 갈아입지 않는 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사64:6).”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전가는 '본질의 변화'도 아니요 '신화'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그 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신 동시에 생명이시며 은혜로서 의 이 의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가르칠 뿐이다. ⁴¹⁾

다음으로 '분여'에 대하여 살펴보자. 분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의 실체가 인간 안에 분여됨으로써 내재하여, 인간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분여(impartation)이다.

37) 유태화, 『삼위일체론적 구원론』, 325.

38) *ibid.*, 342.

39) *ibid.*, 343.

40) *ibid.*, 357.

41) *Inst.*, III. 14. 17.

42) 칼빈은 '분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본질의 의'에 관하여 두 가지로 논박을 하는데 이해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³⁾

첫째,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값없는 용서에 의해 하나님과의 화해, 의롭게 됨, 의의 값없는 전가 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오시안더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감동시키는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한다. 즉, 단순한 거룩함과 의로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본질의 의'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신일합일'을 도모하게 된다.

둘째, 오시안더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주장의 근거는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이며 생명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나 오시안더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전가'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연합된다.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봄으로써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옷 입으며 그의 몸에 접붙여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그가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⁴⁴⁾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칼빈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종교적 신비와 하나님의 본체와의 합병을 의미하지 않는다.⁴⁵⁾

1.5 칭의와 그리스도의 연합관계

42) 유태화, 『삼위일체론적 구원론』, 343.

43) Inst., III. 11. 6.

44) Inst., III. 11. 10.

45)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사상』, 151.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요,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된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며 '의롭다 하심'과 '죄용서함'은 법정적인 선언과 같다. 칼빈은 칭의를 이해함에 있어 값싼 은혜로의 전락을 원치 아니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자는 결코 불법한 욕망이나 불결한 생활을 추구하지 않는다. 칭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칭의는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 맥그라스는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칭의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에 동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바에 의거하여, 또한 이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역사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듯이, 인간의 목적과 행위가 '그리스도를 좇는' 적합한 표현이 되도록 어떤 모양, 표현 그리고 형식을 부여하지만,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고자 하는 관심은 궁극적으로 우리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인식되어야 함이 마땅하다.⁴⁶⁾

칭의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니이젤에 의하면 칭의는 하나님과 교제를 맺기 전 죄인의 형상을 벗어버리게 된다. "칭의란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죽음의 댓가로 부여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맺기 전 그 죄인의 형상을 벗어버리게 됨을 의미한다."⁴⁷⁾ 칼빈에게 있어서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신앙을 통해 얻는 이 구원론은 줄음이 오는 따분한 교리도, 또는 사람을 무사안일하고 무모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신앙의 대상, 즉 예

46) 엘리스터 맥그라스, 『이신칭의의 현대적 의미』, 김성웅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154.

47) Inst., III. 11. 2. 빌헤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사상』, 157. 재인용.

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구원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⁴⁸⁾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리차드 개핀(Richard B. Gaffin)에 의하면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사라지곤 했던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칭의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유일하게 전가적인 행동으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감지된다는 것이다.⁴⁹⁾ 특히 이것은 루터의 전통에서 두드러진다고 말하였고, 구원의 서정에서 연합은 칭의의 열매로서 혹은 결과로서 칭의를 뒤따른다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다.⁵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칭의의 열매 또는 결과로써 칭의를 뒤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핀은 종교개혁 전통에서 칭의는 그 연합을 '보여주는' 실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 69번 문답을 제시하였다.⁵¹⁾ 문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9번의 문답은 다음과 같다. 문 69. 무형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가지는 은혜의 교제는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 교인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가지는 교제는 그의 중보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과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양자되는 것과 성화되는 것과 그 외에 금생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는 여러 가지 유익이다.⁵²⁾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실재들 중의 하나인 것이다. 다음으로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알아보자. 니이젤은 칼빈의 말을 인용하여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48) *ibid.*, 156.

49) 리차드 개핀, 『구원이란 무엇인가?』, 유테화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7), 94.

50) *ibid.*,

51) *ibid.*,

52)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김혜정, 남정숙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244.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는 가장 큰 선물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칭의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칼빈은 칭의가 없이는 종교가 존재할 수 없는 원초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⁵³⁾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칭의를 종교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초적 요소 중의 하나로 본다. 뿐만 아니라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중요성에 대하여 유태화는 “...따라서 칭의를 말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는 핵심을 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 수 있을까?”⁵⁴⁾라고 하였다. 즉,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유태화는 바울의 회심을 예로 들며 칭의의 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은 아주 분명히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있다.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신을 대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하지 않는다. 이 사실에서만 칭의는 한 인간의 실존을 새롭게 빚어내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다.⁵⁵⁾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은 신자에게 의의 전가로 칭의를 이루게 하고 신자에게 주어진 칭의는 한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지는 칭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연합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칼빈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의와 거룩함이 있다고 말한다.

53) Inst., 3. 11. 1.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사상』, 157. 재인용.

54) 유태화, 『삼위일체론적 구원론』, 96.

55) ibid.,

.....우리는 둘을 구별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시며,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에 못지않게 거룩함을 포함한다.⁵⁶⁾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소유’,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안에 참여’ 등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개핀은 전가와 그리스도와 연합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는 나의 의가 된다. 따라서 방금 언급했던 두 다른 가능성⁵⁷⁾을 배제하고 이것이 사실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전가 개념의 핵심이 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전가적인 측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주어진 칭의와 통합적인 것이며,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⁵⁸⁾

즉,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진 칭의와 통합적이며 분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개핀이 바울에게서 내

56) Inst., III. 16. 1.

57) 개핀은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정점에 도달한 순종에서 완성되고 종결된 그리스도 자신의 의, 현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에서 소유하신 바로 그 의라는 선택이 그 하나이다. 둘째, 그 관계의 사실, 연합된 사실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셋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안에 계신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사역의 결과에서 비롯된 그 의와 순종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연합 그 자체 안에서, 칭의의 근거는 신자들과 구별된 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혹은 그리스도와 구별된 자로서 신자 안에서 있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핀은 여기에서 세 번째의 경우를 지지한다. 리차드 개핀, 『구원이란 무엇인가?』, 96.

58) ibid., 98.

린 결론을 칼빈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그 자리를 갖는다. 그 연합과 상관없이 어떤 칭의도 없다.”⁵⁹⁾라고 하였고 결정적인 증언을 칼빈이 오시안더를 반박하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과의 결합, 즉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간단히 말하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는 최고로 중요시 여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자가 되심으로써 그가 받은 선물을 우리도 나눠가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봄으로써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옷입으며 그의 몸에 접붙여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그가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⁶⁰⁾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칭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연합 없이는 그 어떤 칭의도 있을 수 없다. 위에서 칼빈은 칭의를 그리스도 중심, 곧 그리스도연합의 관계에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칭의에 이어 칼빈이 이해하는 성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알아보자.

2. 칼빈의 성화에 대한 이해

칼빈의 성화는 중생을 말하며 회개는 성화에 포함된다. 『기독교 강요』 3권 3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데 3장부터는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회개’로 시작해서 4장과 5장에서는 복음의 순수성과는 거리가 먼 스콜라 퀘변가들의 회개론, 고해와 만족설(보속설)을 논하고, 6, 7, 8장에서

59) *ibid.*, 94.

60) *Inst.*, III. 11. 10.

는 실천부분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다룬다. 칼빈은 회개를 중생으로 해석하며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신자들 안에서 회복하는 것으로 보며 "나는 회개를 한 마디로 중생이라고 해석하는데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⁶¹⁾라고 하였다.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다. 회개를 통하여 칼빈이 말하는 성화를 이해하려고 한다.

2.1 회개를 통한 성화이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오늘날 개혁신학의 성화의 이론체계를 설명하는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곧 회개를 믿음의 결과로써 다루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에서 믿음을 다룬 후, 3권 3장에서 믿음에서 회개로 넘어가면서 성화를 시작한다. 회개는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에 포함되는데 회개는 믿음을 따르고 믿음에서 회개가 생기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보다 회개가 선행한다고 하며, 회개가 믿음을 따르거나, 나무의 열매같이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부정한다.⁶²⁾

환언하면 위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생활을 청산하고 회개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이 회개보다 선행하며 회개는 믿음을 따르고 회개는 믿음의 열매

61) Inst., III. 3. 8.

62) Inst., III. 3. 1.

와 같다. 칼빈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서로 구별하나 분리할 수 없다고 하며⁶³⁾ 하나님을 향한 회심을 전체적으로 '회개'란 말로 이해한다. 칼빈이 말하는 회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⁶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바른 길로 돌아 서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게 한다. 즉,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한다.

칼빈은 회개에 '죽임(mortification)'과 '살림(vivification)'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 먼저 죽임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⁵⁾ '죽임'에 대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며 심리적 충격과 타격을 받게 되어 교만이 꺾이고 낙담하며 절망상태에 빠지는데 이것이 '통회(contrition)'라고 불리는 회개의 시초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살림'은 무엇인가?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이라고 해석한다. 바꿔 말하자면 죄의식으로 좌절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공포에 싸였던 사람이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즉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일어나며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회복하고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⁶⁶⁾

칼빈이 말하는 '살림'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와 구원을 깨닫고 용기를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죽는 것과 같다. 칼빈은 회개를 통해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이 있는데 죽이는 일은 육체의 정욕, 세상의 욕심 등을 죽이는 일을 말하고 살리는 일이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 회개의 '죽임'과 '살림'을 통해 한 평생 동안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화를

63) III. 3. 5.

64) *ibid.*,

65) III. 3. 3.

66) *ibid.*,

이루어 나간다.

2.2 신자들과 죄와의 관계를 통한 성화이해

신자들과 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칼빈은 “신자들은 성화를 체험하지만 현세 생활에서는 죄 없는 완전성을 체험하지 못한다.”⁶⁷⁾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자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의 잘못에 빠지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세 생활에 있어서는 죄 없는 완전성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해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은 중생한 사람 안에는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가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정욕의 불길이 튀어나와서 죄를 짓도록 꾀며 자극한다는 것이다.⁶⁸⁾

참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종류의 욕망이 생기게 하는 패악성 자체를 ‘죄’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기까지 항상 그들 안에 죄가 있다고 가르친다. 이는 그들의 육속에 의와 싸우는 패악성, 곧 육욕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⁶⁹⁾

칼빈은 위에서 ‘악을 촉발 시키는 불씨’와 ‘그들의 육속에 의와 싸우는 패악성, 곧 육욕’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롬 6:6), 죄의 법이(롬 8:2)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폐지되었지만, 다소의 흔적은 남아있다.”⁷⁰⁾ 이것들과의 싸움이 성화된 후에도 신자들에게 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성화되지만,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은 많은 죄와 무기력에 둘러싸여

67) Inst., III. 3. 10.

68) ibid.,

69) ibid.,

70) Inst., III. 3 .11.

있다. 그래서 완전과는 아주 먼 우리는 꾸준히 계속 전진해야 하며, 죄
속에 얽혀 있으나 매일 그 죄와 싸워야 한다.⁷¹⁾ 그러나 중생한 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책에서도 해방된다.

이런 혼적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이 전연 없는 것같이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
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
는 일이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책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책에서 해방된다.⁷²⁾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를 알아보자. 결정적이라
는 말은, 정확히,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한다는
것,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롬 6:12, 14)⁷³⁾ 이 결정적인 성화는 칭의와 함께 우리
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자들을 향하여 '거룩하
다' 인정하시는 결과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 결정적인
성화에 의해서이다. 유태화는 결정적인 성화론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말
한다.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무조건적인 통치에 굴종하지
않으며 오히려 은혜의 통치 아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⁷⁴⁾ 그리고 신자의 삶에 있어서 완전과는 먼
꾸준한 죄와의 싸움이 있는데 이것이 점진적인 성화인 것이다.

2.3 회개의 실천적 부분을 통한 성화이해

칼빈은 회개의 실천적 부분에 있어서 외면적인 회개와 내면적인 회개
를 다룬다. 외면적인 회개란? 금식이나 슬피 우는 것, 재를 무릅쓰는 행

71) Inst., III. 3. 14.

72) Inst., III. 3. 11.

73) 유태화, 『삼위일체론적 구원론』, 350.

74) *ibid.*,

위를 말하며 내면적인 회개란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요엘서 2:12-13에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다.⁷⁵⁾ 그런데 칼빈은 “외면적인 고백을 ‘회개’라고 부를 때에, 내가 설명한 회개의 진정한 의미에서 탈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회개는 죄책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며, 동시에 벌과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⁷⁶⁾ 칼빈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이어서 칼빈은 위에서 소개한 외면적인 회개와 내면적인 회개의 구분이 아닌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하도록 명령을 받은 회개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사람들의 회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⁷⁷⁾ 즉, 다른 종류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한 회개로서 구원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회개로서 칭의를 얻은 신자들의 삶에서 짓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즉, 전자가 구원을 이루는 회개라면 후자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게 한다.

칼빈이 말하는 이 두 가지 회개 중 일상적인 회개는 점진적 성화를 돕는다. 칼빈은 이 두 가지 회개를 구별하며 점진적인 성화를 돕는 회개를 일상적인 회개라고 말하며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특별한 회개라고 하였다.⁷⁸⁾ 칼빈이 말하는 일상적인 회개가 점진적 성화를 돕게 된다. 일상적인 회개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죄와의 싸움이라면 구원을 이루는 특별한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칭의의 수단인 믿음에는 구원을 이루는 특별한 회개가 따르게 되어 있다. 특별한 회개는 칭의에 앞서 믿음과 함께 칭의의 수단이 된다.

75) Inst., III. 3. 17.

76) Inst., III. 3. 18.

77) *ibid.*,

78) *ibid.*,

2.4 잘못된 회개론을 통한 성화이해

고백과 통회에 관하여 스콜라 교리를 성경적 근거로 칼빈은 검토한다. 칼빈은 회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회개는 이전의 죄를 뉘우치고 우는 것이며 울어야 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과거의 악행에 대해 통곡하는 것이고 통곡할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다.”⁷⁹⁾ 칼빈은 회개의 정의를 근거하여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밝히며 후기 스콜라 학자들이 가르친 교리는 교부들의 정의보다 더 졸렬하다고 비판한다. 그들의 회개란 일종의 고행이라는 것이다.⁸⁰⁾ 회개에 관하여 스콜라 교리는 양심을 괴롭히게 되는 데 그 원인은 심령의 통회와 입으로 하는 고백과 행위로 하는 보속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데 있다.⁸¹⁾ 칼빈이 말하는 참된 회개란 주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⁸²⁾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이 실행할 수 없는 공정하고 완전한 통회란 것을 하면, 그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친다.⁸³⁾ 그렇다면 칼빈이 회개를 주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진정한 보속이 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다른 점을 설명한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지우며 그를 통하여 보상을 치른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행위로 죄의 보상을 치른다고 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⁸⁴⁾

79) Inst., III. 4. 1.

80) *ibid.*,

81) *ibid.*,

82) Inst., III. 4. 3.

83) *ibid.*,

84) Inst., III. 4. 27.

칼빈은 이 차이를 바울을 통해 확실하게 규명한다.

바울은 보속과 작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탁한다. 그가 골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1:20).....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는다고 그는 말한다.(골 1:14) 85)

결국 스콜라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교리는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행위인 고백과 행위로서의 보속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신자들과의 화목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보속물인 것이다. 참된 회개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의 보속이 됨을 믿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2.5 실천적 삶의 이해를 통한 성화이해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으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으로 '자기 부정'을 다루며, 8장에서는 또 하나의 '자기 부정'의 일부로써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그런데 3권 6장을 시작하면서 중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생의 목적은 신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에 조화와 일치로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받은 자녀의 자격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데 있다.(갈 4:5, 벰후 1:10 참조)"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 칼빈은 앞에서 중생과 회개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사이, 즉 이제는 신자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85) *ibid.*,

자녀의 자격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제 칼빈은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동기를 두 가지 제시한다.

첫째는 우리의 본성에는 의에 대한 사랑이 전연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⁸⁶⁾ 칼빈은 레위기 19:2, 베드로전서 1:15-16을 의의 기초로 삼기에 좋다고 한다. 인간의 순종의 측면에서 생활의 동기로 먼저 하나님과의 결합을 강조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거룩함이 그 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교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그 결과로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⁸⁷⁾ 그가 부르시는 공으로 우리가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⁸⁸⁾

둘째는 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된 우리가 정처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준칙을 정하라는 것이다.⁸⁹⁾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의 사악과 부패에 잠겨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평생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며, 구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⁹⁰⁾ 성화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화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말했었다. 칼빈은 신자의 삶이 세상의 사악과 부패에 잠겨있는 것을 합당치 않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에 유할 자는 흠이 없고 의를 구하는 자라고 하였

86) Inst., III. 6 .2.

87)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중』,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J. Calvin, Inst., III. 6. 2. 에는 번역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주입되어’는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그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고,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따라가게 된다.” 참조.

88) ibid.,

89) ibid.,

90) ibid.,

다.(시 15:1-2, 24:3-4 참조). 이는 그가 거하시는 성소가 마굿간같이 오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⁹¹⁾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을 나타내야 한다.⁹²⁾ 그러나 이 일이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자들의 생활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전 생애를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을 ‘자기 부정’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말한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추구할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 소유를 잊어버리라.⁹³⁾

결국 ‘자기 부정’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말한다. 칼빈은 ‘섬김’과 ‘헌신’을 함으로써 자기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한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육적인 생각을 버린 빈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명하시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⁹⁴⁾ 그렇다면 헌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칼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역의 출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셨던 것이 자기 부정이라고 한다.⁹⁵⁾ 자기 부정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91) *ibid.*,

92) *Inst.*, III. 6. 3.

93) *Inst.*, III. 7. 1.

94) *ibid.*,

95) *Inst.*, III. 7. 2.

이 자기 부정이 일단 제자의 마음을 점령하면, 그것은 우선 자만이나 교만이나 허식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다음에는 탐욕이나.....그 밖의 우리의 이기심이 빚어내는 죄악들을 전연 허용하지 않는다(딤후 3:2-5 참조).⁹⁶⁾

칼빈은 그 뿐만 아니라 자기 부정은 예배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인을 제거한다고 한다. 첫째는 불경건이요, 둘째는 세상 욕심으로 본다.⁹⁷⁾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신자의 행동 셋을 소개한다. 그것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이라고 하였다. 신자의 삶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다. '자기 부정'의 삶은 천국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경건한 마음의 최고의 경지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었다. 고난과 환난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요구하셨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칼빈은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시킨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은 다른 데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줄을 알게 되는 때에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될 때 그의 빛나는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된다고(빌 3:10-11) 말했다.⁹⁸⁾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은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시는 방편으로

96) *ibid.*,

97) *ibid.*,

98) *Inst.*, III. 8. 1.

삼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기르게 하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기르고 소망을 강화시킨다. 십자가는 육에 대한 우리의 위험한 신뢰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교만이 꺾인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가르치며 그 결과로 낙심하거나 항복하지 않게 된다.⁹⁹⁾

2.6 성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칼빈에게 있어서 회개의 두 부분, 즉 '죽임'과 '살림'¹⁰⁰⁾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때 이루어진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두 가지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참할 때에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면,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롬 6:6) 썩은 본성이 마음대로 힘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가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힘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된다.¹⁰¹⁾

옛 사람, 옛 본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믿을 때 썩은 본성이 힘을 쓸 수 없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바울이 가르친 성경을 인용한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4),

99) Inst., III. 8. 2.

100) 죽임이란? 육체를(악한 정욕, 패역, 악한 감정, 옛사람을 가리킴) 죽이는 일, 즉 우리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살림이란? 영을 살리는 일로 육의 본성을 죽임으로써 이어지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거룩하심, 새로운 생각, 새로워진 심령을 말한다.

101) Inst., III. 3. 9.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골 3:10,참조)고 하였다.”¹⁰²⁾ 정리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신자의 참 모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인가? 칼빈은 회개가 중생인데 회개의 유일한 목적이 아담의 범죄로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¹⁰³⁾이라고 하였다. 이 회복을 이루는 일이 그리스도와 의 연합이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유태화는 성화와 신비적 연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우리는 이에 동의한다.

성화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은 신자에게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는 출발점이요 근거가 된다.....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유지할 때,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풍부해지는 것이다.¹⁰⁴⁾

성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한다. 유태화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남아 있을 때, 모든 생명의 원천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와 건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이다.¹⁰⁵⁾

102) *ibid.*,

103) *ibid.*,

104) 유태화, 『삼위일체론적 구원론』, 96.

105) *ibid.*,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이전의 삶에서 성화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 지도록 돕는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이루는 중심에 성화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다.

앞에서 칭의와 성화의 중심에 그리스도연합의 관계가 있었음을 알아보았다. 이제는 칭의와 성화뿐만 아니라 칭의와 성화를 협조하는 자유, 은혜로서의 보상, 율법의 제3 기능에 대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Ⅲ. 자유

우리는 앞장에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 칼빈이 주장했던 칭의와 성화의 중심에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가 형성됨을 알아보았다.

먼저 칼빈의 구원론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자. 칼빈의 구원론의 중심인 그리스도연합은 바울의 구원론의 본질과 일치한다. 개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강요』 제3 권을 열면서, 결론적으로 언급하려고 하는 칭의를 포함하여, 구원의 방법, 즉 구원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적용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하는 모든 사실을 지배하는 핵심과 관련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를 위하여 고통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되며,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진술이 바울의 주장에 가장 신실한 것이며, 그의 구원론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¹⁰⁶⁾

바울의 주장과 칼빈이 주장하는 구원론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이신칭의를 비롯하여 성화, 믿음, 선택, 자유, 보상 등에 흐르는 구원론교리의 중심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칼빈의 구원론의 교리들은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연합과는 칭의와 성화를 비롯하여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 등이 연결되어 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신칭의만 강조한 구원체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신칭의와 율법의 제2 용도를 너무 강조해 왔다.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가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교리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신칭의와 율법의

106) 리차드 개편, 『구원이란 무엇인가?』, 84.

제2 용도의 강조로 인하여 한쪽 면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 부도덕, 비윤리의 문제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칼빈 신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칭의의 강조나 율법의 제2 용도만 강조하는 불균형의 신학이 아니다. 칼빈이 성경적인 신자와 교회를 이루어 가는 중심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교리들의 균형과 조화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와 성화뿐만 아니라 자유, 은혜와 보상, 율법의 제3 용도의 교리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안에서 어떻게 칭의와 성화를 돕는지 밝히려고 한다.

1. 자유의 의미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9장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전개하였다. 칼빈은 자유를 구실 삼아 하나님께 대한 일체의 복종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방탕 생활에 뛰어 드는 것과 구분하여 '기독교적 자유'라고 언급하였다.¹⁰⁷⁾ 뒤에 언급하는 '자유'는 '기독교적 자유'를 가리킨다.

칼빈은 자유에 관하여 세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는 양심과 율법에서의 자유이다. 양심과 율법에서의 자유는 칭의를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어떠한 의를 얻기 위한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¹⁰⁸⁾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믿음에 의해서 받는다. 칼빈은 구원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율법 하에서 저주를 받은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회복하

107) Inst., III. 19. 1.

108) Inst., III. 19. 2.

는 수단이 단 하나 남이 있다는 것을- 즉 믿음으로 회복하는 수단만이 남아 있다.”라고 하였다. 109) 그렇다면 이 은혜와 믿음은 칭의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 이는 사실은 의롭다함이 율법의 행위와는 분리되기 때문에 그 어떤 선행이나 공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서 3:24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증언한다. 바울의 기록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는 선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칼빈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믿음은 선행을 결하고 있지 않고 다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110) 환언하면 칼빈은 이 믿음이 구원을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 어떠한 선행이나 공적이 필요치 않음을 강조한다. 칼빈은 행위와 공적을 통한 의를 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소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행위의 분량이나 한도를 측정할 수 없고 율법 전체에 대한 채무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논의할 때 율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며, 행위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보아야 한다.111)

이제 칭의와 율법과 자유와의 관계를 알아보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칭의를 얻은 자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율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칭의를 얻은 자라야 된다. 그런데 의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만을 보아야 한다.112)

109) Inst., III. 11. 1.

110) ibid.,

111) Inst., III. 19. 2.

112) ibid.,

신자들에게 율법으로 부터의 자유는 은혜로 주어지며 율법의 규정에 판단되지 않는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은혜로 인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¹¹³⁾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가 왕 노릇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롬 5:21)”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는 어떠한가? 칼빈은 “행동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과 같이, 양심은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¹¹⁴⁾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양심이란 무엇인가? 칼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감각이 사람에게 결합된 증인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당할 죄를 감추지 못하게 할 때에, 이 감각을 ‘양심’이라고 부른다. 양심은 사람이 마음속에 아는 것을 숨기지 못하게 하며, 도리어 그것을 추궁해서 드디어 유죄를 선언하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종의 중간적 존재이다.¹¹⁵⁾

즉, ‘양심은 일천 명의 증인이다’¹¹⁶⁾라는 옛 격언처럼 사람의 모든 비밀을 찾아내서 하나도 흑암 속에 묻혀 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명된 보호자이다.¹¹⁷⁾ 신자들이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자들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칭의에 대한 확신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에 의한 의를 일체 잊어버리고 율법을 뛰어 넘어 더욱 전진해야 한다.”¹¹⁸⁾ 신자들은 은혜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

113) Inst., III. 19. 6.

114) Inst., III. 19. 15.

115) ibid.,

116) Quintilian, Institutes of Oratory V. xi. 41(LCL Quintilian II. 294f.). Cf. Comm. Seneca, On Clemency I. xiii ; magis uis conscientiae”(CR V. 102). J. Calvin, Inst., III. 19. 15. 재인용

117) J. Calvin, Inst., III. 19. 15.

118) J. Calvin, Inst., III. 19. 1.

들이며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참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한다. 브라이언 채플이(Bryan Chapell) 은혜의 교리의 유익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인위적으로 속박하고 정죄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은혜의 교리는 이와 같은 율법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은혜의 교리가 율법주의뿐 아니라, 율법폐기론과 자율주의의 폐단까지 극복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¹¹⁹⁾

앞에서 은혜의 교리의 유익성이 율법주의, 율법폐기론, 자율주의의 폐단까지 극복한다. 은혜의 교리의 하나로서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얻는 자에게 주어지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양심과 율법에서조차도 자유함을 얻게 한다.

둘째는 죄에서의 자유이다. 신자들은 죄에서 자유한다. 그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 칼빈은 로마서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바울은 거기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롬 6장 14절),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을 전개한다. (롬 6:12, 14)”¹²⁰⁾ 신자들에게 있어서 자유의 근거는 은혜에 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있어서 남아 있는 죄책감이 뒤 따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남아 있는 ‘죄의 성향’¹²¹⁾의 문제

119) 브라이언 채플, 『성화의 은혜』,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209.

120) Inst., III. 19. 6.

121) 칼빈은 “신자들은 아직 죄가 근절됐다든지, 또는 의가 자기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아 있는 죄를 언제까지나 노여워하시는 듯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없다.” Inst., III. 19. 6.

에 관하여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잔존하는 죄의 성향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서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은혜로 인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다."¹²²⁾ 칼빈은 이 은혜의 관계 속에 있는 신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죄에서도 자유를 얻는다.

셋째는 종교적 의무에서의 자유를 말한다.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하여 칼빈은 자유를 알지 못하면 양심이 결코 평안히 쉴 수 없으며 미신도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한다.¹²³⁾ 그렇다면 칼빈이 여기서 언급하는 자유란 종교적 의무감으로 인한 억압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 자체로서는 '유해무익한' 외부적인 사물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 의무에도 매여 있지 않고, 그런 사물을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전혀 무방한 일이다."¹²⁴⁾ 여기에는 육식을 먹는 문제, 일과 휴일 문제와 옷 입는 문제 등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심의 자유를 얻으며 사용할 수 있을까? 칼빈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자유할 것을 권하는 이유는 위에서 "양심과의 관계에서 한 번 빠지면 멀고 복잡한 미로에 들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¹²⁵⁾라고 하였다. 칼빈은 이렇게 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그의 목적을 위해서 쓸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이 자유가 향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⁶⁾

즉, 환언하면 믿음으로 좇아 하면 죄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좇아 하

122) *ibid.*,

123) *Inst.*, III. 19. 7.

124) *Inst.*, III. 19. 6.

125) *Inst.*, III. 19. 7.

126) *Inst.*, III. 19. 8.

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결론을 칼빈은 바울에게서 찾는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러므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우리의 양심이 법과 규칙에 얽매인다면(갈 5:1, 4 참조) 양심은 확실히 자유를 잃은 것이다”¹²⁷⁾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일들을 법과 규칙에 매여 양심이 자유를 잃는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을 경시하는 것이 된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문제들에 관하여 울무에 걸려들지 말 것과,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한다.¹²⁸⁾ 그리스도의 희생, 즉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닌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벧전 1:18-19)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2. 자유의 역할과 기능

자유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생동감을 준다. 억압이 없고 의무감보다는 자발적이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자유는 우리를 은혜의 요구아래 있게 한다. 알프레드 필러(Alfred Gohler)는 다음과 같이 이 관계를 설명한다. “애굽의 종 됨 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자유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은 우리를 은혜의 요구 아래 있게 한다.”¹²⁹⁾ 은혜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 관계를 필러는 복종하는 노예와 순종하는 아들의 비유로 설명한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참된 관계는 복종하는 노예의 비유보다는 순종하는 아들의 비유가 더 좋은 표현이다. 그것을 순종을 의미한다.

127) Inst., III. 19. 14.

128) ibid.,

129) Alfred Gohler, 『칼빈의 성화론』, 18.

순종은 강요되고 무서워 떠는 노예의 복종이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녀의 순종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노예의 두려움을 강요받게 되고, 다시 말하여 무서움의 멍에를 매면 그때 인간은 기쁨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또 기쁨으로 멍에를 매지 못하게 되므로 온전한 복종이 될 수 없을 것이다.¹³⁰⁾

자유역할은 신자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한다. 은혜의 요구는 자녀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의 순종이다. 두려움이고 무서움이 없고 강요되거나 무서워 떨지 않는다. 자유는 하나님께 자발적 순종을 하게 한다. 율법의 지배 하에서는 양심은 항상 전전긍긍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신자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할 마음을 갖는다.¹³¹⁾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9장에서 성화를 돕는 자유의 방법을 설명한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여 자유를 행사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규칙은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결과가 될 때에는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고, 이웃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이다."¹³²⁾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웃의 덕을 세우게 될 때는 내 자유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자유를 포기한다. 자발적인 자유의 포기는 또 다른 자유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경우 자유를 포기하며 기쁨을 누린다.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의 기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다. 칭의, 성화, 회개, 자유 등도 선물이다. 특히 기독교적 자유는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잘 사용하여야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¹³³⁾ 칼빈은 자유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을 권한다. "곧 하나님

130) *ibid.*, 20.

131) *Inst.*, III. 19. 4.

132) *Inst.*, III. 6. 12.

의 선물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¹³⁴⁾ 칼빈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모든 의식(儀式)들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요를 느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식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자신의 주관하에 두셨다.¹³⁵⁾

기독교인의 자유는 율법의 정죄와 심판아래 벗어나게 하지만 율법의 제3 용도와 긴밀하게 협조한다. 칼빈은 이 자유의 방종으로 인한 폐해를 염려하며 “어떤 자는 이 자유를 구실로 삼아, 하나님께 대한 일체의 복종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방탕 생활에 뛰어들다. 또 어떤 자는 자유를 무시하고, 그것이 모든 절제와 질서와 분별을 폐기한다고 생각한다.”¹³⁶⁾ 라고 지적하였다. 즉, 이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나 복음의 진리나 영혼의 내적 평화를 모두 바르게 알 수 없다.¹³⁷⁾ 그렇다면 자유를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역할은 무엇이 담당하는가? 이 기능을 율법의 제3 용도가 담당을 한다.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율법은 모든 불완전을 정죄하고¹³⁸⁾ 참소하는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완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더 이상 올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율법의 제3 용도는 우리에게 적용되어 신앙의 길에 보호의 역할을 감당한다.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의 제3 용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에 대하여 넘어서는 안될 위험의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133) Inst., III. 19. 8.

134) *ibid.*,

135) *ibid.*,

136) Inst., III. 19. 1.

137) *ibid.*,

138) Inst., III. 19. 4.

3. 자유와 칭의, 자유와 성화와의 관계

3.1 자유와 칭의의 관계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셨다는 법정적인 선언과 같다. 의인으로 받아 주셨다는 것은 신자에게 죄에서 자유가 주어졌음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이 법정적인 선언으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신자들은 죄의 형벌에서 제외되고 죄와 양심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죄는 여전히 존재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죄의 요인들이 형벌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죄의 잔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확인하게 만든다.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식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선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된다.

칼빈은 칭의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로 정의하였는데 칭의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또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¹³⁹⁾

칭의를 획득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자가 수여자의 신분이 되었음을 말하고 죄의 용서는 죄의 형벌에서 더 이상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왕 노릇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칭의는 신자에게 행위와 의무에서 자유가 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듯이 입혀져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서는 신자에 의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알려 준다.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이나 본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그 의에 참여하고 자유를 누리게 한다.

49) Inst., III. 11. 2.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근거는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 유태화는 진정한 구원의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칼빈의 자유의 개념과 뜻을 같이한다.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가 다만 대속의 주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비록 100%의 헌신된 삶을 추구하지만, 칭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칭의에서 종말론적인 완성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일 뿐이다. 결코 자신의 행위에 구원론적인 의미를 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구원의 자유에 도달하게 된다.¹⁴⁰⁾

구원의 확신은 믿음에서 온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삶은 칭의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위를 전연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소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행위의 분량이나 한도를 측정할 수 없고, 율법 전체에 대한 채무자가 된다.”¹⁴¹⁾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근거는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

자유는 칭의를 따르며 칭의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기독교인의 자유란 칭의를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칭의가 어떠한 인간의 공적과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한 것처럼 칭의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주어진 기독교인의 자유는 칭의 이후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3.2 자유와 성화의 관계

140) 유태화, 『삼위일체론적 구원론』, 344.

141) Inst., III. 19. 2

헨드리쿠스 베르코프는(Hendrikus Berkhof)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 신학에 대한 자유의 이해와 함께 자유의 남용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창조의 본래적인 소여(所與)로서의 자유 의지는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 구속 사역에 있어 실현된 의지에 협력적인 요소를 귀속시키도록 만들었다. 역으로, 종교개혁 신학은 후자를 두려워하여, 자유를 피조된 구조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 그러하다. 두 가지 측면 전부 다, 죄가(오용된) 자유의 결과로서만 단순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자유의 힘과 위험은 자유가 심지어 스스로를 자유롭게 파괴할 만큼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¹⁴²⁾

베르코프의 지적은 자유의 남용이 자신을 파괴할 만큼 위험한데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 신학 모두 자유의 위험성을 잊는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칼빈은 이 위험성에 대하여 바울의 말로 설명한다.¹⁴³⁾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 환언하면 바울은 자유를 선용(善用)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칼빈은 사랑이 자유를 선용으로 이끄는 데 자유의 목적은 화목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의 약한 이웃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니 사랑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충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¹⁴⁴⁾

칼빈은 사랑이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 올바르게 제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랑의 덕목인 화목이 자유의 목적임을 말하였다. 『기독교 강

142) 헨드리쿠스 베르코프, 『기독교신앙론』,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313.

143) Inst., III. 19. 11. 롬 15:1-2, 고전 8:9, 고전 10:25, 고전 10:29-32, 갈 5:13.

144) ibid.,

요』 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소제목 대부분의 내용이 사랑과 관련이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불가하다’, ‘넘어지게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르게 행사하며 바르게 포기하는데 대하여’, ‘이웃을 사랑한다는 구실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등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을 전제로 한다. 위의 소제목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을 떠나서는 바르게 사용될 수 없다.

자유는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기 때문에 자유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박건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칼뱅은 바울의 말을 빌어 이 자유의 그리스도 중심적 기초를 확실히 한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¹⁴⁵⁾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자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인 것이다.

다음으로 칼빈은 사랑과 믿음과 자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자유를 사랑보다 아래 두어야 하는 것과 같이, 사랑 자체는 믿음을 순전히 지키면서 그 아래에 있어야 한다.”¹⁴⁶⁾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위치를 잘 설명해 준다. 자유는 사랑보다 앞설 수 없고, 사랑은 믿음보다 앞설 수 없다. 또한 자유는 양심에도 제재를 받는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는 이 자유가 향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인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⁷⁾

이상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자유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양심이 있어서 자유의 방향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145) 박건택, 『칼뱅의 자유론』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3), 57.

146) Inst., III. 19. 13.

147) Inst., III. 19. 8.

종교개혁 신학이 자유의 위험성을 잇는다고 한 베르코프의 지적은 칼빈 신학의 바른 이해가 있다면 자유를 남용할 수 없다. 우리는 칼빈 신학의 잘못이 아닌 교육 또는 적용의 잘못으로 베르코프의 지적과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베르코프는 자유의 남용과 결여의 위험을 함께 지적한다. “.....현대 서구 정신에 있어서 자유는 종종 그 자체의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자유의 남용을 자유의 결여만큼이나 아주 나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¹⁴⁸⁾ 또한, 베르코프는 자유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부름받은 동일한 자유를 갖고 그는 세계를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며, 기술과 문화를 통하여 그것을 경작하고 변혁시켜야 한다.”¹⁴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의 결여와 함께 적극적인 자유를 활용할 것을 권하는 베르코프의 지적은 옳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칼빈은 자유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과 양심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과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돕는 것이다.

4. 자유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칼빈이 인용한 갈아디아서를 통해 자유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알아보자. 여기에서 자유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148) 헨드리쿠스 베르코프, 『기독교신앙론』, 314.

149) *ibid.*, 315.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갈 5:1-4).¹⁵⁰⁾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서를 통해 세 가지가 발견한다. 첫째, 신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으며,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났으며,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¹⁵¹⁾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도 갖지만 자유도 얻는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완전성이 전연 미칠 수 없는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의로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¹⁵²⁾ 자유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은혜에 있다.

이제 자유와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알아본다. 자유는 칭의를 따르고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따른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3권 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서두에서 자유와 칭의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자유는 특히 칭의에 따르는 것이며, 칭의의 힘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¹⁵³⁾ 환언하면 칭의는 자유를 이끄는 힘이 있어 자유는 칭의를 따른다. 위에서 칼빈은 자유가 칭의에 따른다고 하였고 본고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해'에서 살펴본 것처럼 칭의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칭의가 따르고 칭의에는 자유가 따른다. 그러므로 자유는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150) Inst., III. 19. 3

151) ibid.,

152) Inst., III. 19. 2

153) Inst., III. 19. 1.

IV. 은혜의 보상

1. 은혜의 보상의 의미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8장에서 보상에서 행위를 추론하는 잘못을 지적한다. 18장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찾는다.

첫 번째는 ‘보상’, ‘기업’, ‘유업의 상’, ‘보수’등에서 행위에 의한 구원을 추론하지 말라는 것이며 영생을 행위에 대한 보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톨릭의 공로에 관한 교리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가톨릭은 공로는 상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인데 공로를 자연 공로와 초자연 공로로 나눈다. 이에 대한 박도식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자연 공로는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금이다. 3년 개근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세상일에 뛰어나서 공로상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자연 공로가 주는 세상의 상금이 아니라 영원 생명의 상금을 위한 초자연적인 공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죽음이요, 죽은 다음 하느님[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행복의 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공로를 세워야 한다.¹⁵⁴⁾

환언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금은 자연 공로이고 영원한 생명의 상금은 초자연적인 공로로 받는다.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칼빈과 무엇이 다른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특히 두 가지 해독을 머릿속에서 뽑아버려야 한다. 행위의 의를 믿어서는 안 되며, 행위를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¹⁵⁵⁾ 또한 공로가 성경에 없으며 위험한 말이라고 지적한 후에¹⁵⁶⁾ 칼빈은 다음과

154) 박도식, 『200주년 기념 천주교 교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6), 131.

155) Inst., III. 14. 16.

같이 말한다.

‘공로’란 말을 쓸 필요는 무엇인가? 이 말에 얼마나 큰 화근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 준 해독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참으로 그것은 심히 강한 자존심을 표시하는 말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리며, 사람들에게 폐악한 자만심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다.¹⁵⁷⁾

그럼 여기서 칼빈이 지적하는 인간의 공로로 인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과 행위의 의한 보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1) 행위를 공로화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킨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결백에서 향기를 얻어 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긴다고 가르침으로써,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권한다.”¹⁵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칼빈은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결백에서 향기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2) 행위를 공로화 시키는 것은 인간의 자만을 부추긴다.

로마 교회의 신학이 그리스도의 힘과 영광을 소멸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리며, 사람들에게 폐악한 자만심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다.¹⁵⁹⁾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부 옮겨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후사와 의에의 참여자와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공로를 세울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부 옮겨 받는다.¹⁶⁰⁾

156) Inst., III. 15. 2.

157) ibid.,

158) Inst., III. 14. 16.

159) Inst., III. 15. 2.

그러므로 행위를 공로화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소멸시키고 인간의 자만을 부추길 뿐이다.

3) 행위에 위한 공적은 이 원인인가? 결과인가?

칼빈은 철학자들이 사물의 형성을 네 가지 원인으로 보는 사실을 통하여 이를 규명한다. 영생을 얻는 동력인으로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보았고, 질료인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의를 얻으셨다고 하였고, 형상인은 믿음이며, 목적인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애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⁶¹⁾ 칼빈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성경전체를 부인할 생각이 없다면 동력인이나 목적인에 대하여는 논쟁을 일으킬 수 없고 행위에 의한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질료인과 형상인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고 말한다.¹⁶²⁾

그렇다면 '공로' 대신에 무엇을 바라야 될까? 칼빈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라. 그러면 빈곤과 망은과 교만 등의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공로가 있어도 있는 체하지 않으며, 공로가 없어도 담대한 교회는 복되다."¹⁶³⁾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왜? 칼빈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과 보상을 추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선행의 가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기 때문이다.¹⁶⁴⁾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선한 일들을 그의 불결로 오염시킨다는 것뿐이다. 사람은 아무리 완전할지라도 오점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⁶⁵⁾

두 번째는 보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용서를 근거로 하며,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그들이 받는 불행

160) Inst., III. 15. 7.

161) Inst., III. 14. 17.

162) *ibid.*,

163) Inst., III. 15. 2.

164) Inst., III. 15. 3.

165) *ibid.*,

과 고난과 중상과 그 밖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이다. 166) 환언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자를 격려하는 위로의 보상이 된다. 칼빈은 영생 까지도 '보상'에 포함시키지만 공로와 보상 사이에 관련짓는 것에 대하여 단호히 경고한다. "그러므로 보상에서 행위의 공로를 결론짓거나, 행위와 보상을 서로 비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167)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 은혜와 보상을 다룰 때에는 순서의 원칙이 필요하다. 칼빈은 보상의 문제를 다룰 때에 은혜를 먼저 다루었다. 그리고 보상과 관련하여 다루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상, 언약의 보상, 위로의 보상, 행위의 보상을 다루면 좋을 것이다. 168) 칼빈이 행위로 인한 보상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행위로 흐르는 문제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먼저 다루고 다음으로 이 행위로 인한 보상의 문제를 다루어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박도식은 초자연적인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166) Inst., III. 18. 4

167) ibid.,

168) 칼빈은 '은혜의 보상'을 강조하였고,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보상에 대하여 신자의 교육에서 칼빈의 이해를 바르게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순서를 제안한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상과 관련하여 먼저 '은혜의 보상'에서 행위를 추론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영생과 보상임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언약의 보상'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돕는다. 그리고 '위로의 보상'으로 환난과 역경가운데 있는 꺾박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보상을 말씀하시며, 위로하여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제 '행위의 보상'을 다루면 된다. '행위의 보상'은 신앙생활의 독려를 목적으로 한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보상이다. 칼빈은 이것을 '은혜의 보상'보다 뒤에서 다룬다.

1)은총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의화된 생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대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하나님]의 초자연 생명과 연결된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초월적인 지향이 있어야 한다. 어떤 선행을 하되 그 행동의 목적을 하느님[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한 지향이나 그들에게 상받을 뜻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3)선행을 해야 한다. 하느님[하나님]을 위한 뜻으로 작은 선행을 해야 한다. 선행에는 작은 희생과 극기도 포함된다. 169)

위의 경우를 보면 상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공로가 필요하지만 의화된 생활이 전제되고, 하나님께 둔 행동의 목적, 하나님을 위한 뜻의 선행을 필요로 한다. 초자연적인 공로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만을 놓고 볼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선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다른 차이는 눈에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보상 개념과 비교해 보자. 한국교회의 문제는 보상을 다름에 있어서 은혜를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 즉, 행위에 위한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주어지고 하늘의 상이 준비된다고 말한다. 문제는 은혜를 설명하지 않고 보상을 다루는 방법에는 기복사상이나 행위의 보상으로 흐르게 한다. 칼빈은 보상에서 행위를 추론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보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는다. 여기에 대하여 칼빈은 보상을 말하는 구절들이 행위를 구원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⁷⁰⁾ 칼빈은 다음과 같은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한다.

‘그 손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잠 12:14),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잠 13:13),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마 5:12),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눅 6:23),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8),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롬 2:6).¹⁷¹⁾

169) 박도식, 「200주년 기념 천주교 교리」, 132.

170) Inst., III. 18. 1

171) ibid.,

칼빈은 위의 성경구절들을 구원의 결과로 이해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행위가 있기 전에 값없이 주신 것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속이거나 희롱하시는 것이 아니다.”¹⁷²⁾ 즉, 칼빈은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시나 그렇다고 해서 ‘행위의 보상’을 ‘은혜의 보상’과 비교할 때 우선시 하지 않는다. 칼빈은 보상을 다룸에 있어서 먼저 은혜의 보상의 관계를 설명하여 행위에 의한 구원과 보상으로 흐르는 것을 주의하라고 지적한다. 은혜의 보상의 관계로 설명하는 제목들은 ‘보상은 ‘기업’이다’, ‘은혜로서의 보상’,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 ‘보상의 근거는 용서이다’, ‘환난을 참으면 보상이 있는가?’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보상’을 다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해야 할 것을 말한다. 행위에 의한 보상의 측면은 순서로 볼 때 뒤에 선다. ‘보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은혜의 보상’을 다루고 ‘행위에 의한 보상’을 다루는 칼빈의 입장과 로마 가톨릭의 단순히 ‘행위에 의한 보상’을 강조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2. 은혜의 보상의 역할과 기능

신자들의 행위에 갚으시는 보상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칼빈은 암브로시우스가(Ambrosius) 쓴 이방인들을 부르심(*The Call of the Gentiles*)이라는 고대 저서를 암브로시우스의 가 마 20:1을 바르게 해석했다고 하며 그의 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와는 별도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 많이 수고했으나 늦게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처사를 보고 자기들이 받는 것은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란 것을 깨달

172) Inst., III. 18. 3.

아야 한다.¹⁷³⁾

칼빈은 보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강조한다. 은혜로서의 보상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은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만든다. 칼빈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든다. (창 15:5, 17:1, 18:18 참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과 그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베푸실 이유가 없을 때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한다.

신자들의 어떤 행위도 그것이 고려되기 전에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즉 하나님 자신의 자비 이외에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는 때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다고 우리가 여기서 밝히는 점에는 모호한 데가 조금도 없다.¹⁷⁴⁾

은혜의 보상은 우리의 교만을 꺾는 동시에 용기를 돋운다.¹⁷⁵⁾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은혜가 앞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주의 자비가 우리의 행위에 있는 모든 불의를 덮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는 우리의 행위에 의를 전가하실 수 있겠는가?¹⁷⁶⁾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先行)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외에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므로, 자기의 행

173) *ibid.*,

174) J. Calvin, *Inst.*, III. 18. 2.

175) J. Calvin, *Inst.*, III. 18. 5.

176) *ibid.*,

위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동시에, 이들 행위가 추악한 찌끼로 더럽혀져 있어서 주의 심판의 표준대로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는 다만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가르친다.¹⁷⁷⁾

위와 같이 보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함을 알 수 있다. 은혜로서의 보상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행위로 인한 자만을 잠재우게 된다. 반면에 용기를 회복할 수 있다. 신자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근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선행(先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의 작은 봉사를 가치 있게 만든다. 칼빈은 ‘하늘에 쌓는 보물’에 관하여 영원히 거할 천국으로 우리의 재산을 옮겨 놓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전하는 방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꾸이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마 25:40 참조).¹⁷⁸⁾ 그렇다고 해서 행위에 가치를 두는 쪽은 칼빈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해를 돕는다. “...우리의 선행을 장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실 가치도 없는 우리의 봉사가 그 어느 하나라도 무가치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¹⁷⁹⁾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된다. 보상에 있어 행위에 의한 보상을 기대함이 아닌 은혜로서의 보상은 신자의 신앙생활을 더욱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보상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이다. 칼빈의 설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한다.

177) *ibid.*,

178) *Inst.*, III. 18. 6.

179) *ibid.*,

그러나 여러 가지 약속에서는 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의에 대한 보상이 사취(詐取)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그의 뜻뿐 아니라, 그의 놀랍게 후하신 마음도 증명되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승업성에 대해서 거대한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빛으로서 요구하실 완전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갚는 것은[갚지만] [우리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종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이다.¹⁸⁰⁾

하나님께서 보상을 갚으신다고 해서 마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상을 주신다는 약속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은혜의 보상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반면에 은혜의 감사가 빠져 버린 신자의 삶은 형식과 의무감만이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원치 아니하신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밝힌 은혜의 보상은 신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다.

3. 은혜의 보상과 칭의, 은혜의 보상과 성화

3.1 은혜의 보상과 칭의

은혜의 보상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둔다. 순서에 있어서 선행이나 공적이 우선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 은혜의 보상을 알아보기 전에 칭의와의 성화와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자. 칭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자가 하나님 앞에

180) Inst., II. 8. 4.

인정받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신자에게 있어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 의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참으로 성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빛을 드러낼 행위를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죄로 인정된다. 이것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서는 상식일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고 믿는다.¹⁸¹⁾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죄를 용서 받은 후에 따르는 선행은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입장에서 평가된다.¹⁸²⁾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선행은 칭의를 얻은 결과로 인정을 받는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위에 있는 모든 결함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덮이고, 모든 오점은 그리스도의 순결로 깨끗케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허물의 죄책이 도말되고, 선행까지도 항상 더럽히는 허물의 불완전이 묻혀 버린 후에는,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의롭다고 간주된다. 바꿔 말하면, 의로 인정된다(롬 4:22).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이 의를 얻은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이중의 의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칼빈은 칭의와 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을 우리에게 알린다.

또, 우리는 값 없이 주시는 칭의를 얻은 이후에 따르는 행위를 중시하

181) Inst., III. 14. 8.

182) *ibid.*,

더라도 그런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능을 떠맡는 것같이 생각해서 안 된다. 또는 행위가 이 기능을 믿음과 나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신칭의가 유지되지 않으면 행위의 불결이 폭로될 것이다. 또한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므로 그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까지도 가치 이상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¹⁸³⁾

환언하면 이신칭의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인정되는 '신자의 행위에 대한 의의 인정'을 믿음에 있어서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으며, 믿음의 역할을 행위가 담당하지 않으며, 신자의 행위는 이신칭의에 의하여 행위까지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신자의 행위에 대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주어지는 칭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先行)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은혜의 보상은 칭의를 떠나 바른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칭의를 떠나서 은혜의 보상을 말할 수 없다.

3.2 은혜의 보상과 성화

은혜의 보상과 성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선행은 성도의 신앙훈련을 돕는다. 칼빈은 선행과 성도의 훈련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 제시된 복된 소망을 하늘에서 얻으려고 행위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주께서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¹⁸⁴⁾ 은혜의 보상은 이러한 점에서 성화와의 관계에서 소망을 회복시키고 선행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의무를 열심히 이행하는 신자들의 배경에는 첫째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소망 때문이었으며, 둘째로는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¹⁸⁵⁾ 그러나 주의할 것은 소망을 지탱

183) Inst., III. 17. 9.

184) Inst., III. 18. 3.

185) ibid.,.

하는 것을 행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지탱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한다.¹⁸⁶⁾ 루터는 신앙과 선행이 왜 동등할 수 없는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왜 신앙이 것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왜 선행은 신앙과 동등할 수 없는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행은 신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 안에 거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오직 말씀과 신앙만이 영혼 안에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⁷⁾

신자에게 있어서 말씀과 신앙만이 영혼 안에서 신자들의 삶을 다스린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상은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게 하고 신앙으로 말미암은 헌신의 근거를 하늘의 소망과 진리의 말씀에 두게 하여 성화를 돕는다. 또한 신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일평생 달음질을 계속해야 한다.¹⁸⁸⁾ 그러나 칼빈은 집주인의 비유(마 20:1 이하)를 통하여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보수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확실히 한다.¹⁸⁹⁾ 그렇다면 칼빈은 보상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는가?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은혜의 보상은 용서의 삶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 간다. 신자의 삶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성경은 금한다. 그러나 용서받은 확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성화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 관계를 설명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교만을 더욱 꺾는 동시에 우리의 용기를 돋운다. 그 외에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므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동시에, 이들 행위가 추악한 찌끼로 더럽혀

186) *ibid.*,

187) 마르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6), 144

188) *Inst.*, III. 18. 3.

189) *ibid.*,

져 있어서 주의 심판의 표준대로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는 다만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가르친다.¹⁹⁰⁾

칼빈은 이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해석한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의 믿음은 사랑으로써 역사하기 때문에(갈 5:6 참조) 버림받은 믿음이 아니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함 2:4) 그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도 받는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선행같이 보이는 것도 죄로 변하기 때문이다.¹⁹¹⁾

칼빈은 은혜의 보상을 강조하면서 보상에서 행위의 의를 추론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상의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용서'라고 말한다. 즉, 선행의 의는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승인하신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한다.¹⁹²⁾

죄의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하나이다. 칼빈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하나님 나라란 것은 죄의 용서와 구원과 생명과 그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의미하였다."¹⁹³⁾ 즉, 하나님 나라란 신자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의미한다. 이 축복의 다양한 요소 중에 죄의 용서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죄의 용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고 무죄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거기서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¹⁹⁴⁾ 칼빈은 이 두 가지 은혜, 즉 의롭다 하심과 죄의 용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여기에 근거하여 믿음과 회개를 구별하는 것이 유익함을 설명한다. "이 두 가지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믿음의 바른 대상은 하나님의 자비이며, 이 자비에

190) Inst., III. 18. 5.

191) *ibid.*,

192) *ibid.*

193) Inst., III. 3. 19.

194) *ibid.*,

의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므로 믿음과 회개는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것이 유익하다.”¹⁹⁵⁾

칼빈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이 자비에 의해 죄가 용서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회개는 용서의 선행조건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러나 이런 조건은 우리의 회개가 근거가 되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주께서는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시고 만일 그들이 은혜를 얻고 싶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신다.¹⁹⁶⁾

위에서 신자에게 회개가 죄의 용서의 자격이 되지 않음을 알아보았다. 칼빈은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 보았고,¹⁹⁷⁾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실 때에 인간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다. 거기에는 그의 자비가 사람들이 회개하는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¹⁹⁸⁾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하는 원인이 되어 신자들에게 죄의 용서를 받게 한다. 이 죄의 용서가 보상을 받을 근거가 된다.

은혜의 보상은, 보상→ 죄의 용서→ 회개→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와 연합의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은혜의 보상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회개할 용기를 회복하여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다. 칼빈은 이 죄의 용서가 보상에 근거가 된다고 말하며 믿음의 행위로 결정짓는다.¹⁹⁹⁾ 은혜의 보상에서 성화와의 관계는 보상의 근

195) *ibid.*,

196) J. Calvin, *Inst.*, III. 3. 20.

197) J. Calvin, *Inst.*, III. 3. 21.

198) J. Calvin, *Inst.*, III. 3. 20.

199)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의 믿음은 사랑으로써 역사하기 때문에(갈 5:6 참조) 버림받은 믿음이 아니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함 2:4), 그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도 받는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선행같이 보이는 것도 죄로 변하기 때문이다. *Inst.*, III. 18. 5.

거가 하나님의 자비와 죄의 용서에 있다.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와 소망을 회복하게 된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은혜의 보상은 보상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4. 은혜의 보상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칼빈이 말하는 은혜의 보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관되어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행위와 보상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행위에 대한 보상’, ‘믿음에 대한 보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혜로서의 보상’이다. 칼빈은 이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보상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²⁰⁰⁾ 그런데 이 영생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보상’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²⁰¹⁾

보상은 기업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주어진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께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만이 이 기업을 향유할 수 있으며 (갈 4:7 참조), 그렇게 되는 데는 양자로 삼으신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엡 1:5-6 참조).²⁰²⁾ 그렇다면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양자가 되었을 때 은혜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라고 하였다.

200) Inst., III. 18. 3.

201) *ibid.*,

202) Inst., III. 18. 2.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영원한 사망인 것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져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일은 다만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실현되는 것이다.²⁰³⁾

즉,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칭의를 얻은 자이다. 칼빈은 이렇게 양자가 된 자가 '기업', '믿음의 보상-영생',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은혜의 의미를 채플이 필립 브룩스의(Philp Brooks)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필립 브룩스는 '은혜'(grace)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God's Riches At Christ's Expencc)이라고 설명했다. 보다시피 '은혜'란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개의 철자를 사용해 다섯 개의 단어를 만들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이는 그리스도뿐이다.²⁰⁴⁾

이 축복을 받을 대상은 그리스도뿐이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은혜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결국 칼빈은 보상에서 '보상'을 받을 대상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하며 이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으로 행위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이루시는 완성의 비전은 우리를 더욱 은혜 안에 머물게 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또한 완성하실 것이다(빌 1:6). 그러나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은 그들이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와 같이 되며, 참으로 자녀답게 되는 때이다. ²⁰⁵⁾

203) Inst., III. 18. 3.

204) 브라이언 채플, 「성화의 은혜」, 6.

이상과 같이 은혜의 보상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은혜의 보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케 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완성의 비전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205) Inst., III. 18. 1.

V. 율법의 제3 용도

1. 율법의 제3 용도의 의미

일반적으로 율법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순서나 명칭의 사용은 각각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제3의 용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루이스 벌콕(Louis Berkhof)은 정치적 또는 세속적 용도, 교육적 용도, 교육적 용도 또는 규범적 용도로 구분하였고.²⁰⁶⁾ 권호덕은 정치적 또는 시민적 용도, 신학적 용도, 규범적 용도로 논문에 사용하였고. 필립 멜란히톤(Philipp Melanchthon)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제2 용도를 가장 중요한 용도로 표현했다.²⁰⁷⁾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몽학선생의 역할은(갈 3:24) 율법의 제1 용도와 제2 용도, 두 기능에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²⁰⁸⁾ 율법의 제3의 용도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기능으로 칼빈은 신학적 용도를 첫 번째로 다루고, 두 번째로 시민법의 용도를, 세 번째를 중생하는 자들을 위한 계명으로 순서를 정했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로 시민법을 두 번째로 신학적 용도로서의 율법을 세 번째로 중생한 자를 위한 규범적 용도를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율법의 용도는 시민법으로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 사회를 위하여 필수적인 용도인 것이다. 디모데전서 1:9-10은 사도 바울이 이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칼빈은 해석한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206) 루이스 벌콕, 『벌콕조직신학(하)』,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1), 394.

207) '율법의 세가지 용법', 권호덕, 『조직신학연구』,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위임 (서울: 살림출판사, 2002), 194.

208) Inst., II. 7. 11.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기록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버지를 치는 자와 어머니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딤후전 1:9-10).²⁰⁹⁾

이 기능은 형벌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켜, 율법의 절박한 위협을 듣지 않는다면 공정하고 옳은 것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것이다.²¹⁰⁾

두 번째 기능인 신학적인 용도로서의 율법은 우리를 변명할 수 없도록 절망 상태에 빠지게 한다. 낙담과 혼돈과 절망을 느끼게 하며 첫 번째 율법의 용도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하였다.²¹¹⁾ 그 이유는 율법의 준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율법의 신학적 용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는 의를 보여주는 한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불의함을 경고하고, 알려주고, 인정케 하고, 결국 정죄한다.²¹²⁾ 칼빈이 두 번째 용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¹³⁾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본고에서는 두 번째 용도에 해당 됨] 교만의 질병을 치료한다. 자신의 거짓된 의가 낱알이 드러난다. 세 번째는 죄를 깨닫는 기능이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그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의에서 오는 저주를 보게 된다. 전에는 자신이 순결하게 생각했던 것이 모두 무수한 죄악으로 가득차 있음을 알게 된다.²¹⁴⁾ 율법의 제2 용도는 그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죄악됨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²¹⁵⁾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폭로시킴으로 율법은

209) Inst., II. 7. 10.

210) ibid.,

211) Inst., II. 7. 3-4.

212) Inst., II. 7. 6.

213) ibid.,

214) Inst., II. 7. 6-7.

215) 밀라드 J. 에릭슨, 『구원론』, 김광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

그가 죄인임을 확증해 준다. 216) 칼빈은 이러한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거기에 불순종하면, 즉 어떤 사람이 어떤 점에서도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율법은 무자비하게 저주의 벼락을 내린다.”²¹⁷⁾ 그러나 이제 율법의 제2 용도는 더 이상 우릴 괴롭히지 못한다.

세 번째, 이제 율법의 제3 용도인 중생한 자를 위한 용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율법의 제3 용도에 대하여 멜란히톤이 표현하였는데 적용되는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멜란히톤은 중생하고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았으며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라고 한다.”²¹⁸⁾ 바로 이 내용을 참조하면 율법의 제3 용도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밀라드 J. 에릭슨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신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써 의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율법은 신자들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된 성경의 율법으로서 여겨져야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 보았듯이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¹⁹⁾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계명으로서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루터와 멜란히톤이 율법의 제2 용도를 중요시 여겼다면²²⁰⁾ 칼빈은 무엇을 중요시 했을까?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율법의 본래 목적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다

회, 1992), 236.

216) *ibid.*,

217) J. Calvin, *Inst.*, II. 7. 15.

218) CR 21, 719: “Quatenus autem renati et justificati fide sint liberati a Lage, dicendum est suo loco.” 권호덕편, *조직신학연구*, 208. 재인용.

219) 밀라드 J. 에릭슨, 『구원론』, 236.

220) ‘율법의 세 가지 용법’, 권호덕, 『조직신학연구』, 194.

스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²²¹⁾ 칼빈은 이 세 번째의 율법의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신자들에게 적용시킨다. 바빙크가 말하는 영생을 근거로 행하는 율법이 제3 용도에 해당된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근거로 하여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²²²⁾ 율법의 제3 용도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행하는 계명으로서 영생을 근거로 행하는 제3 용도의 율법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살펴보았다. 율법은 용도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그런데 칼빈은 왜 율법의 제3 용도를 가장 중요시 여겼을까? 의문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제3 용도와 그리스도의 연합과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일까? 알아보자.

2. 율법의 제3 용도의 역할과 기능

칼빈은 율법의 제3 용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율법의 가장 주된 기능이고 또한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도 더 가까운 것이다. -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자들과 관련된 것이다.”²²³⁾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신자들을 위한 생활 규칙이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무들을 기억케 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²²⁴⁾ 칼빈은 이 세 번째의 용도를 신자들과 관련을 지으며 가장 주된 기능으로 다루었다. 개편은 율법의 제3 용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 칼빈의 이해와 통한다.

복음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율법은 나의 원수이고 나를 정죄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복음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

221) Inst., II. 7. 12.

222) 헤르만 바빙크,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개요』,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602-603.

223) Inst., II. 7. 12.

224) 루이스 벌콕, 『벌콕조직신학(하)』, 394.

도 안에 있는 경우, 율법은 더 이상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친구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그의 의지, 그 자신의 인격에 영원히 내재하는 그의 성품과 관심의 표현으로서 율법은 결과적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속하며, 핵심에 있어서 도덕적인 율법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위한 우호적인 안내자인 것이다.²²⁵⁾

정리하면 율법의 제3 용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이며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위한 우호적인 안내자인 것이다. 율법의 제3 용도는 신자들에게 보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마치 경고를 무시하고 질주하면 위험에 노출되는 것처럼 신자의 삶에 위험요인들이 있음을 경고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세 번째 용도의 기능을 설명한다.

...즉 율법에 대해서 자주 명상함으로써 복종하겠다는 열성을 얻으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며 범법의 미끄러운 길에 들지 않게 된다. 성도는 이 오 같이 전진을 계속해야 한다. 그들은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아무리 정성껏 노력하더라도, 무관심한 육이 짐이 되어 제대로 전진할 수 없다. 율법은 육에 대해서 마치 가지 않는 게으른 나귀를 가게 하는 채찍과 같다.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의 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율법이 여전히 부단한 자극이 되어 일시도 한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한다. ²²⁶⁾

율법의 제3 용도는 위와 같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도록 자극하고 강화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삶을 위한 규범들은 많으나 영구불변한 규범은 하나밖에 없다.²²⁷⁾ 그것이 율법의 제3 용도이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가혹한 집행관 행세를 하지 못한다. 이제 이 기능은 우리의 의무에 일치하며 유익한 규범인 것이다.²²⁸⁾ 율법의 제3

225) 리처드 개핀, 「구원이란 무엇인가?」, 187.

226) Inst., II. 7. 12.

227) ibid.,

용도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불완전을 일깨워 준다. 제3 용도는 율법이 신자들에게 더 이상 바른 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율법이 신자들에게 전과 같은 것이 아니다.²²⁹⁾ 이제 양심을 정죄하거나 파멸시킬 수 없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율법의 제3 용도가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돕는지 알아보자.

3. 율법의 제3 용도와 칭의, 성화

3.1 율법의 제3 용도와 칭의

율법의 제3 용도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율법의 제3 용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언급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받을 저주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맥그라스는 칭의의 선물이 신자에게 있어 신분에 맞는 의무를 제공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칭의라는 선물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 의무 또한 우리에게 지운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 변화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²³⁰⁾ 맥그라스가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에 의하여 칭의라는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분에 맞는 의무로서 율법의 제3 용도는 걸맞게 행동할 지침서가 되는 것이다.

칼빈은 이 율법의 제3 용도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면에서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³¹⁾ 첫째는 주의 뜻의 성격을 매

228) *ibid*

229) *Inst.*, II. 7. 14.

230) 엘리스터 맥그라스, 『이신칭의의 현대적 의미』, 152.

231) *Inst.*, II. 7. 12.

- 일 더욱 철저히 배우며 확고하게 이해하는 데 율법은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되고, 둘째는 배우는 일뿐만 아니라 충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자주 명상함으로써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얻으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며 범법의 미끄러운 길에 들지 않게 된다. 칭의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주어진 제3 용도의 율법은 우리의 의무와 일치하는 동시에 또한 도움을 준다.²³²⁾

3.2 율법의 제3 용도와 성화

성화와 율법의 제3 용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다. 성화란 칭의를 입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자녀로서의 삶을 생활 속에서 분리하고 구별해 내어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는 데 있다.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주 자신을 배척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신다. 칼빈은 성화의 삶이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연관성을 말하였다.²³³⁾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화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려지고 있다. 먼저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밀라드 J. 에릭슨은(에릭슨) "성화란 신자의 삶 속에서 그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이다."²³⁴⁾라고 하였다. 칼빈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위해 생활 속에서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측면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성화, 곧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함께 다룬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때에는 느린 걸음으로, 선택 받은 사람

232) Inst., II. 7. 13.

233) Inst., III. 6. 3.

234) 밀라드 J. 에릭슨, 『구원론』, 219.

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 버리며, 그들의 죄책을 깨끗이 없애며, 그들을 성전으로 주께 바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정한 순결에 이르게 하시며, 그들이 평생을 통하여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만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²³⁵⁾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간의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신자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며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화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측면과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성화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 율법의 제3 용도는 위의 인간 편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기능을 돕는다. 율법의 제3 용도는 성화와 긴밀하게 협조한다.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에릭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자의 삶이란, 그냥 구원받고 그 지식 안에서 쉬고 있는 정적인 내용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장하고 진보해가는 과정이다. 물론 신자 스스로의 힘으로써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를 따라서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도전과 만족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이다.²³⁶⁾

성화의 삶은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를 따라서 성장하고 진보해 가는 과정이다. 여기에 율법의 제3 용도는 여행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고 신자들을 격려하고 불완전을 일깨워 날마다 조심하게 한다. 신자들에게 생활규칙과 의무를 일깨워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자극받고 강화시키며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즉, 신자의 삶에 있어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우리의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회구조 속

235) Inst., III. 3. 9.

236) 밀라드 J. 에릭슨, 『구원론』, 244.

에 관여하는 일은 아주 미묘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²³⁷⁾ 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흠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과 친절과 동정의 삶을 사는 것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²³⁸⁾ 이러한 신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율법의 제3 용도가 기능을 담당한다.

4. 율법의 제3 용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율법의 제3 용도는 중보자 안에서 누리는 율법의 즐거움과 기쁨이다. 칼빈은 다윗이 율법의 제3 용도를 이해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확실히 다윗은 율법을 찬양했을 때에 이 용도에 대해 언급했다. “여호와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시 19“7-8).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시 119:105). 이 밖에도 같은 시편에 무수한 말씀이 있다(예컨대, 시 119:5). 이 구절들은 바울의 발언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사도는 중생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 자체만으로서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여기서 예언자는 율법의 위대한 이용가치를 선포한다.²³⁹⁾

칼빈은 다윗이 율법의 제3 용도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보자를 통해서 본 다윗이 바라본 율법은 참으로 기쁨과 희열이 넘친다. 율법이 다만 명령하고 위협함으로써 영혼들을 공포로 괴롭히고 위협을 통해 고민하게 한다면 율법보다 더 싫증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²⁴⁰⁾ 그러나 중보자를 이해 한 다윗의 경우에는 율법의 제3 용도의 기쁨과 감사의 이해

237) *ibid.*, 240..

238) *ibid.*,

239) *Inst.*, II. 7. 12.

240) *ibid.*,

가 있었다고 하였다. 칼빈은 이러한 배경에 증보자를 이해한 다윗에 둔다. 칼빈이 인용한 요한복음 1:17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주어진다. 이제 율법이 신자에게 적용되는 용도가 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는 굴레가 된다.²⁴¹⁾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엡 2:14-15)”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과 신자들과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율법의 제2 용도를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율법의 제2 용도는 정죄와 심판의 기능이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칼빈이 율법의 제3 용도를 강조하고 가장 중요시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율법의 제3 용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또 하나의 선물이다.

241) Inst., II. 7. 11.

VI. 결론

1. 성화와 칭의를 돕는 교리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만을 살펴 본다면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율법의 제3 용도를 읽게 되고, 그리고 칭의와 성화, 그리고 다음에 자유의 순서가 된다. 이미 율법의 제3 용도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신자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스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의식과 방종으로 흐르는 경향을 막는 보호 장치로써 율법의 제3 용도가 역할을 하게 된다. 율법의 역할을 제1 용도와 제2 용도로 국한시켜 율법과 복음하면 율법주의와 복음의 관계로만 이해하게 되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제3 용도는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여기에 칭의와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게 되면 신자들은 지켜야 할 계명을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결국 방종으로 이끌게 되거나 일부 교회에서 선행을 강조하나 행위에 의한 공적의 사상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 이후에도 자유라는 교리를 다루어, 다시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이원화된 신자의 생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첫째, 은혜의 보상과 성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선행은 성도의 신앙훈련을 돕는다. 신자에게 있어서 말씀과 신앙만이 영혼 안에서 신자들의 삶을 다스린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상은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게 하고, 신앙으로 말미암은 헌신의 근거를 하늘의 소망과 진리의 말씀에 두게 하여 성화를 돕는다. 칼빈은 은혜의 보상을 강조하면서 보상에서 행위의 의를 추론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상의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용서'라고 말한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하나이다. 칼빈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하나님 나라란

것은 죄의 용서와 구원과 생명과 그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의미하였다. 즉, 하나님 나라란 신자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의미한다. 이 축복의 다양한 요소 중에 죄의 용서가 포함된다. 칼빈은 '은혜의 보상'을 강조하였고, 칼빈은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보상에 대하여 신자의 교육에서 칼빈의 이해를 바르게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순서를 제안한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상과 관련하여 먼저 '은혜의 보상'에서 행위를 추론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영생과 보상임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언약의 보상'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돕는다. 그리고 '위로의 보상'으로 환난과 역경가운데 있는 핍박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보상을 말씀하시며, 위로하여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제 '행위의 보상'을 다루면 된다. '행위의 보상'은 신앙생활의 독려를 목적으로 한다. 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님의 격려의 보상이다. 칼빈은 이것을 '은혜의 보상'보다 뒤에서 다룬다.

둘째, 자유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신자에게 주어진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양심과 율법과 죄에서, 그리고 종교의 의무에서 자유를 얻는다. 자유는 칭의를 따르고, 칭의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포함된다. 자유는 다음과 같이 성화를 돕는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자유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양심이 있어서 자유의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자유는 사랑보다 앞설 수 없고, 사랑은 믿음보다 앞설 수 없다. 또한 자유는 양심에도 제제를 받는다. 칼빈은 자유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과 양심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과 양심을 따라야 하고, 사랑보다 아래에 위치하여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게 되는 것이다.

셋째, 율법의 제3 용도는 다음과 같이 성화를 돕는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에 맞는 의무와 행동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려준다. 율법의 제3 용도가 주의 뜻을 확고히 배우며 이해하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충고의 기능으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의지와 힘을 제공하여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성화를 돕는다.

율법의 제3 용도는 신자들을 위한 생활 규칙이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무들을 기억케 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율법의 제3 용도는 위와 같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도록 자극하고 강화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삶을 위한 규범들은 많으나 영구불변한 규범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율법의 제3 용도이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가혹한 집행관 행세를 하지 못한다. 이제 이 기능은 우리의 의무에 일치하며 유익한 규범으로서 역할을 한다. 율법의 제3 용도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불완전을 일깨워 준다.

성화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측면과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성화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 율법의 제3 용도는 위의 인간 편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기능을 돕는다. 여기에 율법의 제3 용도는 여행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고 신자들을 격려하고 불완전을 일깨워 날마다 조심하게 한다. 신자들에게 생활규칙과 의무를 일깨워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자극받고 강화시키며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성화를 돕는다.

2.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칼빈은 종교개혁시대에 로마 가톨릭과 대항하여 그들의 공적으로 인한 구원론과 대항해야 했다. 강조점이 이신칭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균형 있는 시각으로 자유, 회개, 성령, 믿음, 율법 등의 교리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날 현시대에

맞추어 적용하고 강조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할 몫은 현시대에 남은 자들의 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용시켰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율법의 제2 용도와 이신칭의를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개혁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교육 부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와 신자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원론적인 신앙의 배후에는 교리의 역할이 온전한 삶으로 이끌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칼빈은 구원론에 있어서 그 중심에 칭의와 성화를 두었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의 칭의와 성화를 협조하는 교리들로서 본고의 부제인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가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것같이 결국 칭의와 성화,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주어진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복음중심의 이해를 통해 알 수 있다. 바울은 복음을 이해할 때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구원의 법정적 측면과 갱신적인 측면을 전혀 혼동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중심에서 이해한다.²⁴²⁾ 복음중심이란? 두 가지를 말하는 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다른 하나는 부활하심이다.

칭의와 성화가 법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법정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의 의가 그리스도인에게 전가된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온전한 순종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상 선언적 승인이 되고 법정인 방식의 선포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자신을 칭의하는 사건이 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하여 그들의 것이 된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 할 수 없다. 복음중심이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칭의, 그리고 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칼빈

242) 리차드 개핀, 『구원이란 무엇인가?』, 68.

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신비로운 연합을²⁴³⁾ 중요시 여겼다.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과의 결합, 즉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간단히 말하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는 최고로 중요시 여긴다.”²⁴⁴⁾ 칼빈이 최고로 중요시 여긴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칭의를 얻게 한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은 구원론과 관련된 교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3. 칼빈 신학의 적용문제

칼빈은 종교개혁시대의 로마 가톨릭과 대항하여 그들의 공적으로 인한 구원론과 대항해야 했다. 강조점이 이신칭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균형있는 시각으로 자유, 회개, 성령, 믿음, 율법 등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날 현시대에 맞추어 적용하고 강조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할 몫은 현시대에 남은 자들의 할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균형과 연합의 의미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신칭의를 강조해 왔고, 율법의 제2 용도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한국교회의 신자들의 신앙과 삶의 궤리의 배후에는 교리의 역할이 온전한 삶으로 이끌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당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경적

243) 개혁신학의 구원론에서 신비적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은 개혁신학의 구원론의 핵심적 진리이다. 신비적 연합이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호내주를 뜻한다.(요 14:20-23). 그러나 이것은 존재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신비적인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 발생하는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상호내주로 보는 것이 옳다. 유태화, 『삼위일체론적 구원론』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7), 89. 91.

244) Inst., III. 11. 10.

인 교훈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교리들을 다루면서 구원에 있어서 그 중심에 칭의와 성화를 두었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의 칭의와 성화를 협조하는 교리로서 본 논문의 부제인 '자유, 은혜와 보상, 율법의 제3 용도가 있다. 결국 칭의와 성화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다루기 전, 기독교강요 2권에서 율법을 다루면서 율법의 제3 용도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신칭의와 함께 복음과 율법의 제2 용도를 강조하였고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율법의 제3 용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다루기 전에 이미 '믿는 자들의 계명'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칭의와 성화를 다룬 뒤에 은혜와 보상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선행과 공적으로 인한 축복론을 경계하듯 상을 다룸에 있어 거듭 은혜를 강조하며 어떻게 신자들에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기독교적 자유를 다루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교회와 신자들의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상황의 배경에는 칼빈이 강조했던 교리의 적용문제가 한국교회와 신자들에게 있어서 올바르게 제시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칼빈이 칭의 안에서 바라보았던 성경적인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소망이 교리의 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지, 칼빈의 신학과 이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다루기 전,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율법을 다루면서 율법의 제3 용도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신칭의와 함께 율법의 제2 용도를 강조하여 율법의 몽학선생으로서의 역할과 심판과 죄를 깨닫는 용도로서의 율법만을 강조하였고,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하다보니 율법의 제3 용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다루기 전에 이미 율법의 제3 용도가 '믿는 자들의 계명'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칭의와 성화를 다룬 뒤에는 은혜로서의 보상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선행과 공적으로 인

한 축복론을 경계하였다. 칼빈은 보상을 다룸에 있어 거듭 은혜를 강조하며 어떻게 신자들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지는 칭의와 성화, 그리고 성화를 돕는 교리들의 역할이다. 이러한 교리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지고 보완하며, 협조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칭의와 성화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 은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나타난다. 이러한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교리들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를 돕도록 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신칭의만을 강조해 왔다. 칭의와 성화와 함께 자유와 은혜로서의 보상, 율법의 제3 용도가 너무나 중요한 교리들이었고 성화의 삶을 돕는 탁월한 해결책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큰 주제인 칭의와 성화와 함께 자유와 은혜의 보상, 그리고 율법의 제3 용도의 교리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신자의 삶을 돕도록 적용하여야 할 중요한 교리임을 드러내고 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밝혔던 성경적 교회와 신자의 모습은 곧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칭의와 성화를 중심한 '율법의 제3 용도'와 '은혜와 보상', 그리고 '자유'의 교리들의 균형과 연합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리들과의 연합은 더욱 각각의 기능들을 빛나게 하며, 보완하고 확실하게 한다. 이러한 교리들의 연합은 따로따로 적용되지 않으며 중생한 신자의 삶에 동시에 적용되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 가게 한다.

오늘날 일부 논문에서 율법의 제3 용도의 중요성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만의 강조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시킬 소지가 있다. 칭의와 성화를 중심으로 한 협조하는 교리들의 연합과 균형이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칼빈 신학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적용의 관점에서 칼빈은 본론에서 소개한 교리들이 연합되어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화와 칭의를 중심으로 자유의 선용, 보상에 대한 은혜의 감사, 율법 제3 용도의 보호역할의 균형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칼빈 신학의 적용에 있어서 간과해 온 것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한글서적

1. 김재성. 『기독교신학, 어떻게 세워야 하나』.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4.
2. 임원택. “종교개혁의 필연성” 『기독교신학저널』.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통권 제 2호, (2002): 171-95.
3. 박도식. 『200주년 기념 천주교 교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6.
4. 유태화. 『삼위일체론적 구원론』.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7.
5.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6. 권호덕. “율법의 세가지 용법” 『조직신학연구』.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역음. 서울: 살림출판사, 창간호. (2002): 189-229.
7. 박영선, 브라이언 채플 외 9인. 『구원이후에서 성화 은혜까지』.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5.

2. 번역서

1.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김혜정, 남정숙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2. 노만 가이슬러. 『로마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라은성 역. 서울: 그리심, 2003.
3. 루이스 벌콕. 『벌콕 조직신학(하)』.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교문사, 2001.
4. 리차드 개핀. 『구원이란 무엇인가?』. 유태화 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7.
5. 마르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6.

6. 밀라드 J. 에릭슨. 『구원론』. 김광렬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2.
7. 브라이언 채플. 『성화의 은혜』.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8.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사상』. 헤롤드 나이트 영역. 기독교
학술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7.
9. 안토니 A. 후쿠마. 『개혁주의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
서선교회, 1993.
10. 알프레드 필러. 『칼빈의 성화론』. 유정우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1.
11. 엘리스터 맥그라스. 『이신칭의의 현대적 의미』. 김성웅 역. 서
울: 생명의 말씀사, 1996.
12. 존 칼빈. 『기독교강요』(상권, 중권). 이종흡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13. 존 칼빈. 『기독교강요』.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14. 헤르만 바빙크.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개요』.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15. 헨드리쿠스 베르코프. 『기독교신앙론』.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